

제1편 개관

제1장 간추려 본 군포 변천사

제2장 시간지도로 보는 군포의 경관 변화

제3장 통계로 풀어 보는 군포의 요모조모



제1장 간추려 본 군포 변천사

이상열 | 군포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1. 경기도 중서부의 중소도시, 군포



시민의 일상 공간이 된 수리산 등산로

군포시는 경기도 중서부, 서울 남부 대도시권의 중심부에 위치한 중소도시다. 경위도상으로 북위 37°와 동경 126°대에 위치하며, 동쪽 끝은 당정동, 서쪽 끝은 둔대동, 남쪽 끝은 도마교동, 북쪽 끝은 산본동에 있다. 동서 길이 7.86km, 남북 길이 7.98km에 36,36km² 면적으로, 경기도 전체의 0.36%를 차지한다. 2009년 현재 전국 77개 시급 도시 중 구리시와 과천시에 이어 세 번째로 작은 면적이다. 인구는 경기도에서 15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 31일 잠정 집계 기준으로 10만 740세대 27만 5,731명이다.¹⁾

군포시는 수리산, 관악산, 모락산, 오봉산 등이 형성한 분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동고서저형의 지세를 이룬다. 시의 서측에서는 수리산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형성되어 안산시 및 안양시와 경계를 이

루고, 동측에서는 안양천이 남동에서 북서로 흐르며 안양시 및 의왕시와 경계를 이룬다. 내부적으로는 수리산 슬기봉에서 흘러내린 산줄기가 감투봉-밤바위산-우래산으로 이어지며, 기존도시권과 산본 신도시권을 뚜렷하게 양분하고, 슬기봉에서 무성봉-구봉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는 기존도시권과 대야동권의 경계를 이룬다. 또한 경부선 철로는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양분한다. 이와 같은 공간구조는 도시 내부의 경관과 공간적 특성, 생활권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리적·역사적 배경과 생활권 등을 고려하면, 군포시의 공간을 크게 기존도시권, 산본 신도시권, 대야동권으로 나뉠 수 있다. 당동·당정동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도시권은 전통적으로 군포 지역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했던 곳이다. 이 권역에는 단독주택지와 공업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로 택지개발과 토지구획정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면서 점차 대규모 아파트단지도

1) 「월별 인구 현황」, 군포시청(<http://www.gunpo21.net>).



위성영상으로 본 군포시 및 주변 지역*

확산되고 있다. 특히 농업지대이던 부곡동에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개발사업이 집중되고 있다. 산본동과 금정동이 속한 산본 신도시권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전반에 개발사업이 집중되었던 곳으로, 특히 산본 신도시 건설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현재 각종 관공서와 상업시설, 문화시설이 밀집한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군포시 전체 세대의 68.9%, 인구의 68.4%가 이 권역에 살고 있다. 수리산 남서측에 형성된 대야동권은 시 면적의 42.2%를 차지하지만, 세대는 3.3%, 인구는 3.5%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이곳이 농업지대이고, 그 면적의 상당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이다. 이 권역은 군포시의 대표적 문화재와 명소, 빼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한 미개발지로서 향후 군포시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포시는 수리산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장점인 도시이자 전철과 도로망이 잘 갖춰져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알려져 있다. 수리산은 2009년 7월 16일에 그중 6,969㎢가 도립공원으로 지정 고시되었는데, 군포시 관내의 도립공원구역 지정 면적은 4,302㎢로, 전체의 62%에 달한다. 수리산의 연봉 중 관내에는 최고봉인 태을봉(489.3m)을 비롯하여 관모봉(426.2m), 거룡봉(슬기봉, 469.3m) 등이 있다.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은 수도권전철 2개 노선이 시 내부를 지나고, 국도1호선과 국도47호선 등 국도 2개 노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 고속국도 2개 노선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2. 행정구역의 변천 과정

군포시는 법률 제4050호 「오산시 등 12개 시 및 태안군 설치와 군의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1988년 12월 31일 공포)에 의거하여 1989년 1월 1일 탄생한 도시다. 시로 승격한 지 2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 시 승격 당시 「군포시 등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1989년 1월 1일 공포)에 의거하여 당동,

* 구글 어스(<http://earth.google.com>).

당정동, 부곡동, 산본동, 금정동 등 5개 법정동을 관할하게 되었다. 또한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1989년 1월 1일 공포)에 의하여 군포1동, 군포2동, 당정동, 산본1동, 산본2동, 금정동 등 6개의 행정동을 설치하였다. 법정동은 법률에 의해 지정된 최하 단위의 행정구역을 말하며, 그 명칭은 고유지명에 따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14년에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부여된 명칭과 영역이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 행정동은 조례에 의해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설치된 행정구역이며, 각 동마다 주민센터가 설치되어 이를 관할하고 있다.

2009년 말 현재 군포시는 9개 법정동과 11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정동은 1994년 12월 26일에 화성군 반월면 소속의 4개 리가 편입되어 각각 법정동이 되면서 기존 5개 동에서 9개 동으로 늘어났다. 행정동은 인구 증가 및 행정영역의 변화에 따라 몇 차례 변경되다가 1998년 10월 1일 이후로 현재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법정동 중 당동의 행정은 군포1동·군포2동이 나누어 관할하고, 당정동은 군포1동이, 부곡동은 군포2동이 관할한다. 금정동은 금정동·재궁동·오금동이 나누어 관할하고, 산본동은 산본1동·산본2동·광정동·수리동·궁내동·오금동이 나누어 관할한다. 이에 비해서 인구가 적은 둔대동·속달동·대야미동·도마교동은 대야동이 관할한다.



법정동(좌)과 행정동(우) 경계도(2009년 말 현재)

그런데 군포시는 역사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속했던 두 지역이 통합되어 형성된 곳이다. 그중 하나는 조선시대 과천현 남면을 근간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광주부 북방면을 근간으로 한다. 전자에는 기존도시권과 산본 신도시권이 속하고, 후자에는 대야동권이 속한다.

먼저 과천현 남면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1895년 5월 26일에 과천군 남면이 되었고, 1914년 3월 1일 과천군·시흥군과 안산군 일부가 시흥군으로 통합되면서 그해 4월 1일 시흥군 남면이 되었다. 이후 1979년 5월 1일 읍으로 승격하였는데, 이때 군포라는 지명이 처음으로 행정지명으로 사용되었다. 군포읍은 도시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의 결과, 1989년 1월 1일 시로 승격하게 되었고, 당시 기존 시흥군은 군포시와 시흥시, 의왕시 등 3개 시로 분할되었다.

다음으로 대야동권이 속했던 광주부 북방면은 1906년 9월 24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안산군에 속하게 되었고, 1914년 4월 1일에 안산군의 월곡면·성곶면과 함께 수원군 반월면이 되었다. 반월면은

1949년 8월 14일 수원군이 부로 승격하면서 신설된 화성군에 편제되었고, 수원부는 승격 이튿날 다시 수원시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반월면은 화성군 소재지로부터 원거리에 있어 인근 자치단체로 편입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 결과, 1994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4434호에 의해 둔대리·속달리·대야미리·도마교리는 군포시로, 건건리·사사리·팔곡일리는 안산시로, 당수리·입북리는 수원시로 편입되었다.

군포시는 출범 당시 20.69km² 면적에 불과하여 특별시와 직할시를 제외한 67개 시급 도시 중에서 가장 작았으나 화성군 반월면의 4개 리를 편입함으로써 면적이 70%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대야동권이 편입될 당시 안양시 및 의왕시와도 일부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져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일부와 동안구의 호계동 일부가 군포시로 편입되고, 군포시 산본동 일부가 안양시 만안구로, 당정동 일부가 의왕시로 편입되었다. 또한 1995년에도 산본동의 일부가 안양시 만안구로 편입되었다. 가장 최근의 행정구역 조정은 2005년 의왕시와 이루어졌는데, 당시 당정동 일부가 의왕시로 편입되고, 의왕시 고천동·이동·삼동·초평동의 일부가 군포시로 편입되었다. 그 결과 군포시 면적은 현재와 같은 36.36km²가 되었다.

군포 지역의 행정구역 변천도

연도	기존도시권·산본 신도시권 (5개 법정동)		대야동권 (4개 법정동)	
475	울목군(栗木郡)			
757	울진군(栗津郡)		한주(漢州)	
940	과주(果州)		광주(廣州)	
983			광주목(廣州牧)	
1413	과천현(果川縣)			
1414	금과현(衿果縣)			
	과천현(果川縣)			
1456	금과현(衿果縣)			
1460	과천현(果川縣)			
1577			북방면(北方面) 1530년부터 문헌에 등장	
1895	과천군(果川郡)	남면(南面) 1699년부터 문헌에 등장		광주군(廣州郡)
1896		북방면		광주부(廣州府)
1906		북방면		안산군(安山郡)
1914	시흥군(始興郡)	남면		반월면(半月面) 수원군(水原郡)
1949		군포읍(軍浦邑)		반월면 화성군(華城郡)
1979. 5. 1.		군포읍(軍浦邑)		
1989. 1. 1.	군포시(軍浦市)			
1994. 12. 26.	군포시(반월면의 4개 리 편입)			

3. 간추린 군포 역사

1) 사람이 살기 시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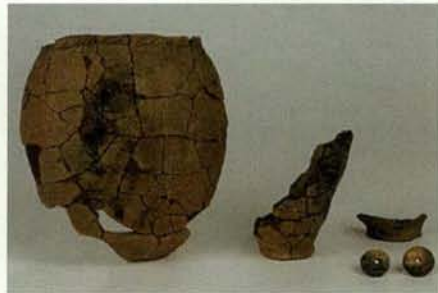
1988년에 현재의 영동고속도로 신갈-안산 구간에 해당하는 신갈-안산간고속도로가 착공되었다. 그에 앞서 1987년에는 공사구간에 대한 문화유적지표조사가 실시되었고, 1988년에는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군포 지역에서도 세 곳에서 유적이 발굴되었다. 그중 한 유적이 대야미동, 현재 대림e-편한세상아파트 서측, 수도권전철 안산선 남측에 접해 있다. '대야미동 구석기유적'으로 명명된 유적이다.

대야미동 구석기유적은 군포시 관내에서 발견된 유일한 구석기시대 유적으로, 발굴 이후 복토되었다. 발굴 당시 수습된 유물은 몸돌 석기가 주를 이루었다. 사냥보다는 조리용으로 쓰인 굽개와 밀개가 많이 출토되었고, 그 외에 주먹대패, 망치 등이 출토되었다. 이들 유물은 후기 구석기시대의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유구가 발견되지 않았고, 석기의 출토 층위가 얇아서 구석기인들이 오랜 기간 정착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잠시 머물다 간 곳으로 추정되었다.³⁾ 그럼에도 이 유적은 군포 지역의 역사성을 알려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유적이라고 하겠다.

군포시에서 구석기유적은 발굴되었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신석기유적은 발굴되지 않았다. 그에 비해서 청동기유적은 다수 발굴되었다.⁴⁾ 먼저 2001년에는 대야미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청동기시대 말기부터 초기 철기시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집터 한 곳이 발굴되었다. 이 집터는 동-서로 긴 장방형 구조이며, 그 내부에서 '골아가리+구멍무늬토기'와 '덧띠+구멍무늬토기' 등이 발굴되었다. 2005년과 2006년에는 부곡지구의 국민주택단지 건설을 위한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청동기시대 주거지유적 한 곳이 발굴되었다. 북서-남동으로 장방형인 이 유적에서는 화덕자리 3기와 기둥 구멍이 확인되었고, '겹입술 토기', '깊은 바리', '가락바퀴'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2008년에는 당동2지구 임대주택단지개발사업 부지에서 청동기시대 집터 2곳과 돌널무덤이 발굴되었다. 집터 중 한 곳은 화덕자리와 기둥구멍만 부분적으로 남아 있었고, 습베가 2단인 화살촉과 민무늬토기 바닥이 발굴되었다. 이 외에도 부곡동과 산본동에서 지표조사된 유물산포지에서도 청동기시대



대야미동 구석기유적 발굴장



부곡지구에서 발굴된 청동기시대 집터 수습 유물

3) 충북대학교박물관, 1988, 『판교-구리·신갈-반월간 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575~609쪽.

4) 군포시·한양대학교박물관, 2002, 『군포시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시굴·발굴조사보고서』;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군포부곡택지개발지구부지내 군포 부곡동 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군포 당동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유물이 수습되었고, 산본 신도시 건설 당시에는 다수의 지석묘가 발굴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도시 개발에 앞서 시행되는 조사에서 청동기시대 유적이 다수 발굴되고 있어, 청동기시대부터는 군포 지역에 본격적으로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고대~고려시대의 지역 변화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이 정립하기 이전, 한강 이남에 위치한 군포 지역은 마한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당동2지구에서 이 시기의 집터가 조사되어 군포 지역의 역사를 조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삼국이 정립하는 시기에 군포 지역은 백제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부곡지구에서 한성 백제시대의 움무덤 19기와 독무덤 4기가 발굴되어 당시 군포 지역이 백제의 영향 하에 있었음을 알려 준다. 백제가 초기에 주변의 통치체들을 통합하고 지배하기 위해 축성한 것으로 보이는 의왕시의 모락산 성이나 안양시 평촌동 귀인 마을에서 발견된 초기 백제시대 집터 등을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다.

한편, 475년 고구려 장수왕이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남진정책을 추진하여 백제의 수도 한성을 점령함에 따라 현 군포시를 포함한 경기도 전역은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당시 고구려는 지금의 군포시·과천시와 안양시 일부, 서울시 관악구·동작구·서초구 일부 등을 포괄하는 '율목군(栗木郡)'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고구려는 신라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한강 유역을 잃게 되었고, 이로써 군포 지역은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 신라는 경기도 일대를 지배하게 되면서 서해안의 남양만(南陽灣) 등을 통해서 중국과 직접 통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신문왕 대에 이르러 행정 구역을 정비하여 9주 5소경을 설치하였다. 경덕왕 대인 757년에는 9주 아래 설치한 군현(郡縣)을 정비하는데, 이때 율목군은 '율진군'으로 개칭되었다.

신라가 쇠락의 길을 걸으며 후삼국이 쟁투하던 시기를 지나 936년에 고려 태조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태조는 고려 초에 지방제도를 개편하고 행정 지명을 변경하였는데, 이때 군포 지역이 속했던 율진군은 '과주(果州)'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후 1018년 또 한 차례 지방제도 개편이 이루어졌고, 과주는 광주목(廣州牧)의 속군이 되었다. 이 당시 군포는 대체로 광주의 영향권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의 군포 지역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다. 이 시기 현 군포시의 산본동·금정동·당동·당정동·부곡동은 율진군을 거쳐 과주에 속했고, 대야미동·속달동·둔대동·도마교동은 광주목에 속한 두입지(斗入地)였을 것으로 보인다. 두입지란 군현 경계가 북두칠성처럼 파고 들어간 모양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개의 이빨이 서로 물려 있는 모양과 같다 하여 견아상입지(犬牙相入地)라고도 한다.

이 시기 유적과 유물로는 산본 신도시 개발 당시 발굴된 산본동 고분군과 수리사(修理寺), 그리고 속달동에서 발견되었던 금동보살입상이 있다. 이들 유적과 유물은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당시 군포 지역 역사의 일단을 알려 준다. 고려시대에는 1154년에 관오(觀輿)가 수리사의 주지로 있었는데는 사실과 최충헌이 왕실과 관련을 맺은 사원세력을 정리하는 데 반발하여 1217년에 수리사를 비롯하여 흥왕사(興王寺), 홍원사(弘圓寺), 경복사(景福寺), 왕륜사(王輪寺), 안양사(安養寺) 등의 승려들이 일으킨 최충헌 살해미수봉기 정도가 군포 지역의 역사를 알려 줄 뿐이다.⁵⁾

5) 『증수주좌관오묘지명(證首州左觀輿墓誌銘)』, 한국금석문증합영상정보시스템(<http://gsm.nrip.go.kr>); 『고려사』 권129, 최충헌.

3) 조선시대, 그리고 군포 지명의 등장

군포 지역은 조선시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하지만, 그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조선 전기에는 여전히 과천과 광주의 일부로서 존재한 사실만 확인될 뿐이다. 1413년에 태종은 지방행정 체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목 8도호부 6군 26현으로 정비되었는데, 이때 과주는 '과천현(果川縣)'으로 개칭되었다. 이듬해 과천현은 금천현(衿川縣)과 합병하여 '금과현(衿果縣)'이 되었으나 불과 두어 달 만에 과천현으로 복구되었다. 1456년에도 다시 금천현과 합병하였지만, 이 역시도 1460년에 원래대로 복구되었다. 이후 과천현은 1895년에 군으로 개편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광주의 경우는 고려시대에 이어 광주목으로 존재하다가 1577년에 이르러 부(府)로 승격하였다. 광주부는 일시 폐쇄되거나 군으로 강등되기도 하였지만, 한말까지 유지되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현재의 대야동권이 속했던 북방면은 1530년 완성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이미 나타나지만, 자세한 사항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기존도시권과 산본 신도시권이 속했던 남면은 1699년 편찬된 『과천읍지』(일명 『과천현신수읍지』)에 이르러 비로소 문헌상에 등장한다. 그보다 앞서 병자호란 전후에 현 산본동에 거주한 이용희(李應禧, 1579~1651)의 시문집 『옥담유고(玉潭遺稿)』가 전하지만, 이 문헌에 남면이라는 지명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1699년 『과천읍지』에는 중요한 지명이 하나 등장한다. 바로 군포시 명칭의 토대가 된 '군포(軍浦)'라는 한자 지명이다. 이 문헌에서 군포는 '군포천(軍浦川)'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군포천은 지금의 안양천 상류 군포시 구간에 해당하는데, 군사를 뜻하는 '군(軍)'자와 물가 또는 개를 의미하는 '포(浦)'자를 쓴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처럼 여섯 가지 설이 존재해 왔다.

- 첫째, 청일전쟁 때 군인이 머물렀다는 설
- 둘째, 군포장역(軍浦場驛)에서 유래하였다는 설
- 셋째, 군포(軍布)에서 군포(軍浦)로 바뀌었다는 설
- 넷째, 군포천(軍浦川)에서 유래하였다는 설
- 다섯째, 옛날에 군인에게 식사를 제공한 데에서 유래하였다는 설
- 여섯째, 군웅산(軍雄山)에서 유래하였다는 설

이들 여섯 가지 설 중 첫 번째 설과 두 번째 설의 배경이 된 사건은 시기적으로 군포의 한자 지명이 등장하고부터 훨씬 후대의 일이므로 설득력이 없다. 세 번째 설은 주로 정조 대의 문헌에 나타나는 기록에 근거한 것이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를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의 화산으로 천묘하기에 앞서 1789년(정조 13) 9월에 능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실을 편찬하도록 어명을 내렸고, 그에 따라 편찬된 『원행정례(園幸定例)』 도로교량조(道路橋梁條)에 '군포천교(軍布川橋)'라는 지명이 나온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편찬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1770)나 『과천읍지』(1699)에 현재와 같은 한자 지명이 등장하므로 이 설도 설득력이 약하다. 네 번째 설은 군포라는 지명의 등장 시기나 최초의 한자 표기에 대해서는 알려 주지만, 지명 자체의 유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여섯 번째 설은 본래 군포라고 불리던 곳이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던 군웅산(軍雄山) 아래에 있었으므로, 군웅산의 '군(軍)'자와 물가를 뜻하는 '포(浦)'자를 따서 부르게 되었다는 해석이다. 이 설은 현대에 와서 주변 지명을 토대로 재해석한 것이고, 군웅산이 언제부터 그렇게 불리었는지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들 설에 비해서 다섯 번째 설은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있다. 이 설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게 패퇴한 승려 의병과 관군이 군포천 일대에서 전열을 재정비하였는데, 이때 마을 사람들이 굶주린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주었고, 사기를 진작한 의병과 관군이 왜군을 크게 무찔렀다는 유래담 형태로 전한다. 즉, 그 후로 이 지역을 굶주린 군인들이 배불리 먹은 곳이라고 하여 '군포(軍飽)'라고 불렀고, 이것이 후대에 '군포(軍浦)'로 변화하였다는 설이다. 1699년 『과천읍지』에 앞서 편찬된 이용희의 문집이나 이곳을 거쳐 간 이들의 문집에 안양천은 기록되어 있으나 군포천이 나타나지 않은 점, 『과천읍지』 편찬 이후에 군포라는 한자 지명이 종종 등장하는 점으로 미루어 이 설은 등장 시점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닌다.



1872년 『과천지도』의 군포 지역

이 지도에서 타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군포정(그림 우측 중앙)과 안양장(그림 우측 상단)이다. 군포정은 실제로는 좀 더 아래쪽에서 안양천 동쪽에 표시되어야 하지만, 이 지도에서는 서쪽에 표시되었다. 붉게 표시된 선은 오늘날 국도1호선에 속한 시흥로이다. 이 지도에서 군포장을 비롯하여 남면, 군포천, 태을산(현 태을봉), 수리산 등 군포 지역과 관련한 지명들을 확인할 수 있다.

임진왜란 당시 군포 지역 인근에 위치한 광교산 일대에서 관군이 왜군에게 대패한 일이 있고, 병자호란 기간 중에도 전라병사 김준룡(金俊龍)이 이끈 전라도 근왕병이 1637년 1월 5일에 광교산에서 청군을 대파한 일이 있다.⁶⁾ 또한 그보다 앞서 1636년 12월 23일에는 일단의 수군(水軍)이 수원과 과천 사이의 요해처에서 청군을 요격한 일도 있었다.⁷⁾ 따라서 이 설은 등장 시점이나 군포 지역 인근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과도 맥락이 닿아서 가장 설득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양란(兩亂) 시기를 지나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 면리제가 발달하면서 군현에 속한 각 면의 영역과 호구·인구 등이 이전 시기에 비해서 보다 상세하게 파악된다. 1789년 『호구총수』를 보면, 당시 과천현 남면은 금정리, 당리, 봉성리, 당정리, 장천리, 산저리, 부곡리 등 7개 리로 편제되었고, 호수 460호, 인구 1,929명(여자 1,122명, 남자 807명) 규모였다. 이는 당시 과천현의 7개 면 중 다섯 번째 규모에 해당한다. 대야동권이 속했던 광주부 북방면에 대해서는 1757~1765년 사이에 편찬된 『여지도서』에 좀 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1759년 기준으로 속달리는 호수 79호, 인구 271명(남 141명, 여 130명), 둔대리는 호수 37호, 인구 117명(남 51명, 여 66명), 대야미리는 호수 39호, 인구 303명(남 153명, 여 150명), 도마교리는 호수 35호, 인구 138명(남 54명, 여 84명)였다. 1호당 인구는 대야미리가 가장 많았고, 남녀 성비에서는 도마교리의 여성 비율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895년에는 개화파가 지방제도 개혁을 단행함에 따라 과천현은 과천군이 되었고, 광주부는 광주군으로 변경되어 인천부에 속하게 되었으나 광주군은 이듬해에 다시 광주부가 되었다. 이후

6) 과천시지편찬위원회, 2007, 『과천시지』, 1, 258·266~267쪽.

7) 『耨耨集』 권 25, 집저(雜著) 병정기사(丙丁記事), 한국고전종합DB(<http://db.kci.or.kr>).

현 대야동권이 속했던 광주부 북방면은 1906년에 안산군에 이속되었다.

4) 철도와 시장이 새로운 군포를 형성하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군포 지역은 현 법정동의 기본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의 기존도시권과 산본 신도시권은 1912년 7월 29일자로 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31호에 의해 10개 동리에서 산본리, 금정리, 당리, 당정리, 부곡리 등 5개 리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그해 2월 5일자로 대야동권은 6개 동리에서 둔대리, 속달리, 대야미리, 도마교리 등 4개 리로 통합되었다.⁸⁾ 즉, 현재 9개 법정동의 틀이 이때 갖추진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14년에 전국적인 행정구역 통폐합이 진행되었고, 그해 3월 1일을 기해 시흥군·과천군과 안산군 일부가 합병하여 시흥군이 되었다. 과천군 남면이었던 군포 지역은 이때부터 시흥군에 속하게 되었는데, 합병 초에는 원(原) 과천군 남면과 현재의 광명시에 해당하는 원 시흥군 남면이 공존하였고, 그해 4월 1일에 명칭을 확정하여 전자를 남면, 후자를 서면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원 안산군에 속했던 북방면은 월곡면, 성곡면과 함께 수원군에 편입되어 반월면이 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중요한 점 중 하나는 현재의 군포시와 흔히 '구군포'라고 불리는 곳의 분화 혹은 새로운 군포의 형성이다. 군포라는 지명이 유래한 곳은 현 군포시 행정구역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본래의 군포는 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虎溪洞)에 있었다. 호계동은 과거에 호계동과 도양리(道陽里)로 나누어 있었는데, 두 동리는 1912년 7월 29일에 호계동으로 통합되었다. 군포는 도양리에 속했는데, 현재의 구군포사거리 일대에 해당한다. 이곳에는 군포장(軍浦場)이라는 정기시장이 섰기

1912년 동리 폐합 전후 비교

행정구역	동리명	
	전	후
과천군 남면	산본동(山本洞)	산본리(山本里)
	초막동(草幕洞)	
	금정리(衿井里)	금정리(衿井里)
	괴곡동(槐谷洞)	
	당리(堂里)	당리(堂里)
	용호동(龍虎洞)	
	당정리(堂井里)	당정리(堂井里)
	봉성리(鳳城里)	
	부곡리(富谷里)	부곡리(富谷里)
장간리(章干里)		
안산군 북방면	대야미(大夜味)	대야미리(大夜味里)
	속달1리(速達一里)	
	속달2리(速達二里)	속달리(速達里)
	속달3리(速達三里)	
	둔대동(屯垔洞)	둔대리(屯垔里)
	도마교(渡馬橋)	도마교리(渡馬橋里)

8)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2월 8일;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7월 29일.

에 시장의 명칭인 군포장을 지명처럼 사용하기도 하였다.

군포장이 언제 처음 생겼는지 알 수는 없으나, 기록상으로 1770년(영조 46) 편찬된 『동국문헌비고』에 군포천장(軍浦川場)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한다. 당시 군포장은 매 3일과 7일에 개설되었다.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1796년(정조 20)에 이 시장을 안양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채제공(蔡濟恭, 1720~1799)으로부터 군포 지역 백성들이 시장 이전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정조는 군포에도 장시를 개설하도록 명하였다.⁹⁾ 이로 인해 안양장이 기존 군포천장의 장날인 3·8일을 택하였고, 군포천장은 1·6일을 택하여 개설되었다. 이 장날은 일제강점기 초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군포장은 1916년 12월 29일에 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73호에 의해 장날을 5·10일(음력)로 변경하였다. 이때에는 군포장이나 군포천장이 아니라 '군포장시장(軍浦場市場)'이라는 명칭으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군포장시장은 1925년에 소위 을축년 대홍수로 피해를 보자 그해 12월 23일자로 폐쇄되었다. 하지만 같은 날짜에 안양천변에서 떨어진 남면 당리, 즉 현재의 군포시 당동에 '군포시장(軍浦市場)'이 허가되어 2·7일(음력)을 장날로 택하여 개설되었다. 같은 날 안양시장도 5·10일(음력)을 장날로 택하여 개설되었다.¹⁰⁾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시장의 명칭이다. 1916년 기록에서 군포장이나 군포천장이 아닌 군포장시장이라고 한 것은 군포장이 하나의 지명으로 고착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1926년 기록에서 군포장시장이 아닌 군포시장이라고 한 것은 군포장과 대비되는 군포라는 지역이 존재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남면 당리를 중심으로 군포라는 지역이 형성된 것이다. 이는 경부선 군포역의 명칭 변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05년 1월 1일 경부선이 개통하면서 남면 당리에 '군포장역'이 설치되어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 역은 당시 군포장이 있던 하서면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고, 행정구역조차 달랐음에도 군포장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본래 경부선철도의 노선은 당리가 아니라 하서면의 군포장을 지나도록 계획되었다. 그러나 열차가 넘기에는 지대고개가 너무 높아서 노선을 당리와 부곡리 쪽으로 변경하여 철도를 건설하였다. 그에 따라 당리에 철도역이 들어서면서 군포장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물론 군포장이 당시 이 일대를 대표하는 지명처럼 인식되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였을 것이다.

군포장역은 1937년에 이르러 역명을 '군포역'으로 변경하였다. 이해에는 군포장우편소도 '군포우편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즉, 당시 관공서와 주요 시설의 명칭이 '군포장'에서 '군포'로 바뀐 것이다. 이는 군포라는 지명이 기존의 군포장과는 별도로 현재의 군포 지역, 그중에서도 당동 일대를 의미하게 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하여 기존에 군포장이 섰던 곳을 '구군포', 군포역을 중심으로 하는 당동 일대를 '군포'라고 하게 되었고, 군포는 차츰 시흥군 남면 전체를 대표하는 지명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5) 공업화·도시화를 거쳐 시로 승격하다

군포 지역은 1905년 군포역의 개설과 1925년 군포장의 이전으로 발전의 계기를 맞이하였지만, 상대적으로 도로 교통망의 발달이 늦어지면서 안양 지역에 비해서 발전의 속도가 더뎠다. 그러나

9) 『일성록』 정조 20년 11월 24일 을축.

10) 『조선총독부관보』 1917년 1월 10일; 『조선총독부관보』 1926년 1월 12일.

196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공장들로 인해 눈에 띄는 변화가 일기 시작했고, 그 속도는 1970년대 들어서 더욱 빨라졌다. 서울시가 비대화되고 그에 따라 각종 기업체의 지방 이전이 추진되면서 경부선 철도가 관내를 관통하고 국도1호선에도 접해 있는 군포 지역으로 크고 작은 기업들이 대거 이전해 왔다. 특히 1973년 11월 21일 경수산업도로의 개통과 1975년 8월 15일 수도권전철의 개통은 군포 지역 공업화에 견인차가 되었다. 당시 시흥군의 통계를 보면, 1975년 8월 말 현재 군포 지역, 즉 당시 시흥군 남면의 기업체는 57개소에 달했고, 이는 1977년 말 72개소, 1979년 말 117개로 급증하였다. 그중에는 건설화학공업, 보령제약, 유한킴벌리, 농심, 국제전선(현 가온전선), 유한양행, 현대양행 등 군포시의 산업을 대표했거나 대표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안양천과 당정천 사이에 기업체가 대거 입지하면서 당정동과 금정동을 중심으로 공업지대가 형성되었고, 인구도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1974년 남면의 인구는 4,242세대 2만 117명이었는데, 이는 5년 전인 1969년의 1,652세대 9,086명에 비해서 세대수는 2.6배, 인구는 2.2배나 급증한 것이다. 전체 세대 및 인구에서 농가의 비율도 1969년 43.7%에서 1974년 15.6%로 크게 낮아졌다. 인구에 비해 세대수 증가율이 높은 것은 직장을 찾아서 외부에서 유입한 소가족 또는 단독세대가 많았음을 알려 주고, 농가 비율이 대폭 감소한 것은 이전 시기에 비해서 농업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 준다. 그리고 남면은 이러한 변화 과정을 거쳐 1979년 5월 1일에 읍으로 승격하였다. 지역의 대표 지명이면서도 행정지명으로 사용되지 못했던 '군포'가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읍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인구증가는 주택 건설을 촉진시켰다. 집단 취락지구가 건설된 것도 이전과는 다른 특징인데, 1970년대의 경우에는 현 산본1동에 건설된 '문화촌'이 대표적이었다. 1980년대 들어서는 지구 단위의 택지개발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본격화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안양8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과 안양산본지구택지개발사업이다.

안양8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0년 3월부터 1990년 12월까지 진행되었다. 총사업비 440억 2,700만 원을 들여 219만 170㎡(66만 2,526평)에 대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3개 공구로 나누어 시행되었다. 군포 지역에서는 산본리 일대가 포함된 제2공구, 당리와 금정리가 포함된 제3공구에서 사업이 시행되었다. 그 면적은 총 124만 470㎡(37만 5,242평)에 달했다.

안양산본지구택지개발사업은 안양8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제외된 금정리 일부와 산본리



안양8지구(좌)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군포로(중앙) 개설

일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1982년 8월부터 1985년 12월까지 81억 8,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41만 3,578.8㎡(12만 5,108평) 면적에 2,400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이 사업의 결과, 2009년 말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산본 구주공아파트 1~2단지가 건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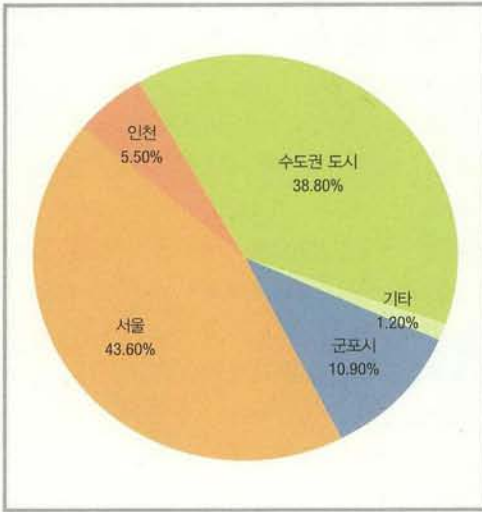
주택 건설과 더불어 도로·수도·전기·전화 같은 기반시설도 정비되면서 군포읍은 도시적인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안양8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과 안양산본지구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의 국도1호선 외에 안양시 중심부에서 군포역을 잇는 지금의 군포로가 건설되었고, 1988년 10월 15일에는 수도권전철 안산선이 개통하고 금정역이 환승역사로 설치되었다. 안양천과 당정천의 양안을 이어주는 산본고가교, 금정고가교, 당정고가교 등도 이 시기에 건설되었다. 이러한 기반시설의 확충은 군포 지역과 타 지역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었다. 또한 도시가스과 수도 시설 보급 등을 비롯한 다양한 기반시설 확충은 군포 지역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하였다.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공업화가 지역 발전을 견인하여 읍 승격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면, 1980년대에는 공업화의 지속과 함께 앞서 살펴본 두 도시개발사업이 지역 발전을 견인하며 시 승격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군포읍은 읍으로 승격하고 정확히 9년 8개월이 지난 1989년 1월 1일에 시로 승격하였다. 드디어 독자적인 행정 영역을 갖게 된 것이다. 시 승격 직전인 198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인구는 2만 3,303세대에 8만 3,785명이었다. 그리고 시로 승격한 지 6년이 다 되어 가던 1994년 12월 26일에 화성군 반월면의 둔대리·속달리·대야미리·도마교리를 편입하면서 현재 행정구역의 기본 골격을 이루게 되었다.

4. 현대 군포를 특징짓는 말, 도시개발

군포 지역은 1970년대에 본격화된 공업화, 1980년대에 본격화된 택지개발과 토지구획정리의 영향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시가 되었다. 시 승격 이후로도 군포 지역에서는 쉼 없이 도시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앞서 살펴본 다른 어떤 변화보다도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 도시개발사업이 시 승격 첫해부터 시작되었다. 바로 산본 신도시 개발이다. 산본 신도시는 1980년대 후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200만 호 주택 건설의 일환으로 건설된 5개 신도시 중 하나다. 정확히 말하면, 1989년 2월 27일 건설부고시 제70호에 의해 군포산본택지개발예정지구에 조성된 대규모 주택단지이다. 즉, 신도시라기보다는 지역 내부에 건설된 신시가지라고 할 수 있다.

산본 신도시 건설은 군포에서 추진된 다른 어떤 도시개발사업보다 급격한 인구증가를 가져왔다. 이 사업이 시작된 1989년에 2만 9,489세대 10만 4,595명이던 인구는 사업이 완료된 1995년에는 7만 8,036세대 24만 5,190명으로 증가하였다. 6년 사이에 4만 8,547세대 14만 595명의 인구가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인구증가는 생업의 다변화뿐만 아니라 인구 구성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한 예로, 산본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조사된 입주자들의 이전 거주지 분포를 보면, 조사대상 입주자의 89.1%가 군포시 이외 지역에서 유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토박이 비율이 급격히 낮아진 것이다. 산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 3차 산업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비해서 농업은 전체 세대의 0.5%만이 종사하는 수준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마저도 1994년 대야동권이 편입된 데 따른 결과다. 대야동권을 제외하면 그 비율은 더욱 낮아져 0.2%대에 머물렀다. 또한 이 사업의 결과, 각종 상업시설과



산본 신도시 입주자의 이전 거주지¹⁾

문화시설이 새로 건립되고, 산본 신도시권 내부, 산본 신도시권과 기존도시권을 잇는 주간선도로가 정비되는 등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되어 도시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산본 신도시 건설 이후로도 군포시에서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1992년 12월 24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시행된 군포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당동 주공아파트단지가 들어섰고, 1995년 1월 4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군포 초등학교 북쪽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섰다. 1999년 5월 10일부터 2006년 5월 8일까지 시행된 당동2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으로 당동의 요골(용호동)에, 1999년 5월 10일부터 2007년 5월 9일까지 시행된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당정동의 큰말 등지에도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섰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진행되었고, 2009년 말 현재 부곡지구, 당동2지구, 송정지구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주택밀집지역에서도 뉴타운사업과 재건축 등이 추진되고 있다.

군포시 현대사의 특징을 정리하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기업체의 증가에 따른 공업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도시개발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군포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많은 자치단체가 비슷하게 경험하였지만, 군포시는 그러한 과정의 표본과 같은 도시다. 그리고 이 두 과정이 없었다면 군포 지역은 지금처럼 하나의 자치단체로 존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특히 좁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이 시기 군포 지역의 역사



산본 신도시 전경

1)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4, 『신도시중간종합평가』.

는 도시개발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도시개발은 기존 공동체의 해체를 동반하거나 갈등을 유발하기 십상이고, 공동체의 해체나 갈등은 그들이 만들고 전승해 온 문화의 해체를 초래한다. 따라서 도시개발 과정에서 공동체의 갈등을 방지하고 그들의 문화를 기록하고 전승하려는 노력은 군포시에 주어진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하겠다.

제2장 시간지도로 보는 군포의 경관 변화

김중혁 |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1. 시간지도의 개념과 분석 시점

이 글은 지도라는 표현 매체를 통하여 군포 지역의 경관 변화를 시간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처럼 한 지역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시계열적으로 구성한 지도를 '시간지도(Time Map)' 라고 한다. 시간지도 개념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지도의 개발과 함께 1990년대 이후 크게 발전하였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변화상을 동적으로 보여 주기도 하는데, 종이지도로 제작할 경우에는 하나의 주제가 시기를 달리하여 복수의 지도로 표현되는 것이 보통이다.

시간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먼저 수행할 일은 자료원(資料源) 확보이다. 자료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베이스 맵으로 활용될 지도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지도의 내용을 구성하는 속성 자료(attribute data)이다. 일반적으로 지형도는 지도 자료의 기본이 되고 행정지도나 개발계획도 등의 주제도, 항공사진이나 위성이미지 등도 지도 자료에 포함된다. 속성 정보 구축에는 지리지(읍지), 보고서, 통계연보, 신문 등이 자주 이용된다. 그중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사용된 것은 지리지이다. 하지만 군포시는 1개 읍을 모태로 하여 새로 태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독립된 자료원이 존재하기 어렵고, 시계열적 변화를 알려 주는 자료원은 통계연보 정도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각 시기별 지형도와 행정지도를 사용하여 시군과 리 또는 동의 경계를 복원하고, 시흥군과 군포시의 통계연보를 자료원으로 삼아 Arc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간지도를 제작하였다.

시간지도의 시간적 범위는 그 제작 목적에 따라 설정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확보된 자료원의 출발점과 도달점으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1950년대까지는 군포 지역에 대한 속성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시기를 포함하여 분석하기는 곤란하다. 일제강점기부터 통계연보가 발행되었지만, 1960년대 이전에는 군포 지역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소략하여 지도 제작이 제한적이고 전체적으로 통일성 유지가 어렵다. 이에 1989년 이전 군포시가 속했던 시흥군이 1961년에 발간한 1960년 기준 제1회 통계연보를 출발점으로 하여 5년 주기의 정규 분할 방식을 택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연보는 해마다 발간되지만, 정보의 변화량이 적은 1년 단위를 주기로 할 경우에는 지역의 변화상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 시점은 2005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이 글의 작성 당시까지 최종 발간된 통계연보의 기준 시점이 2007년까지였음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공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 군포시의 영역이 2005년에 군포시와 의왕시의 경계 조정에 의해 확정된 상황

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위 지역마다 변이하는 양상이 일정하지는 않으며, 특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 있다. 군포시의 경우, 시흥군 남면이 군포읍으로 승격된 1979년, 군포읍이 시로 승격된 1989년, 화성군 반월면의 4개 리가 편입된 1994년 등이 그러한 해이다. 단순히 1960년부터 2005년까지를 5년 단위로 구분할 경우, 이러한 특정 시점의 변화상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960년, 1964년, 1969년, 1974년, 1979년, 1984년, 1989년, 1994년, 1999년, 2005년 등 10개의 시점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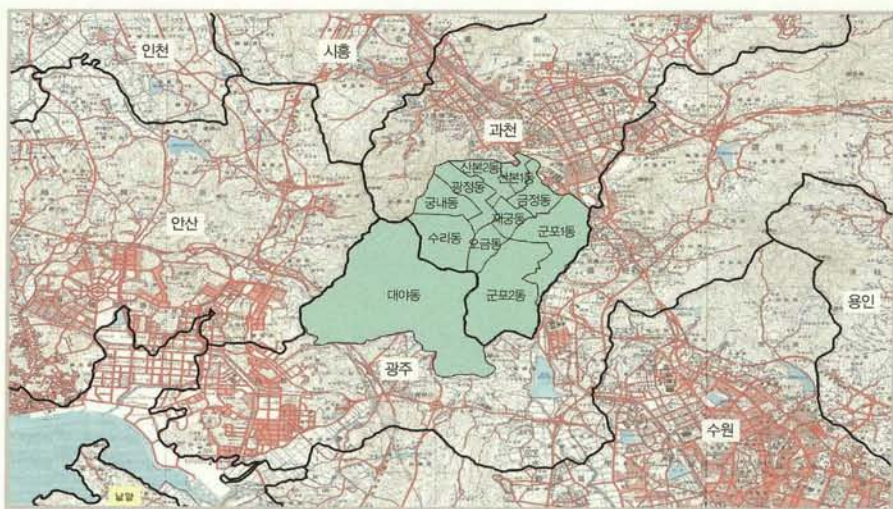
한편, 한정된 지면에 모든 통계항목을 시간지도로 제작하여 분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군포시 공간상의 경관 변화를 살펴보는 데 유용한 토지와 인구, 산업, 건축허가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중 10개 시점에서의 분석을 모두 충족하는 통계 항목은 인구와 토지가 유일하다. 어떤 항목은 두세 시점만 분석이 가능할 뿐인데, 이는 사회·경제 구조가 변하면서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어졌거나 새롭게 조사할 항목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인구와 토지마저도 시흥군 시절에는 리 단위의 현황이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항목은 분석 시점 전체에 걸쳐 지도가 제작되었지만, 어떤 항목은 해당 통계가 드러나는 몇몇 시점에만 국한되었다.

2. 행정구역의 복원과 변화

여기서 다루는 시간지도의 공간적 범위는 현재의 군포시 영역에 국한된다. 그러나 현재의 군포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과거를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통계 항목별로 시간지도를 분석하기에 앞서 군포시 출범(1989년) 이전의 시흥군을 포함하여 그 공간의 변화를 살펴보자. 이는 곧 통계연보로 접근할 수 있는 1960년 이후 군포 지역의 행정구역을 복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군포시에는 9개의 법정동에 11개의 행정동이 설치되어 있다. 그중 대야동과 나머지 10개 동은 1994년까지 행정구역이 달랐다. 우선 나머지 10개 동은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흥군에 속하기 전에는 과천군 남면이었다. 이후 시흥군 남면으로 유지되다가 1979년 5월 1일에 군포읍으로 승격하였고, 1989년 1월 1일 독자적인 행정영역을 갖춘 군포시가 되었다. 대야동은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수원군에 속하기 전에는 광주부 북방면이었다. 이후 수원군 반월면에 속하다가 1949년 8월 14일에 화성군 출범과 함께 화성군 반월면에 속하여 1994년 12월 26일 군포시에 편입되기 전까지 유지되었다. 이처럼 군포시는 역사적으로 다른 곳에 속했던 두 지역이 합쳐져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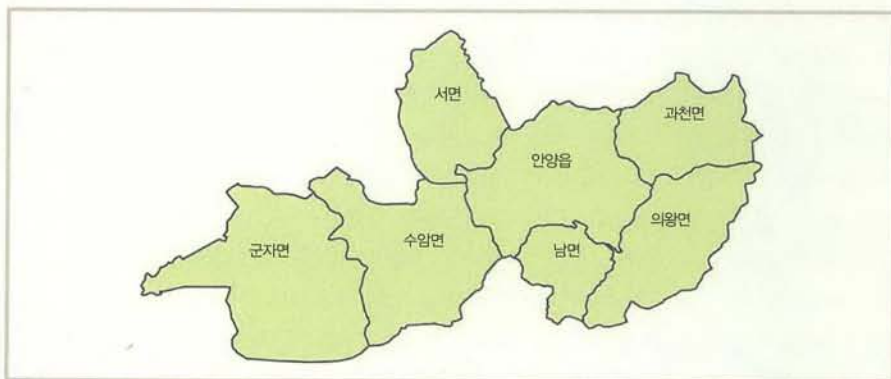
통계연보로 확인할 수 있는 1960년 이후에 한정하면, 행정구역과 영역의 변화를 크게 두 시기로 나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1960년 시흥군부터 군포시가 출범하기 직전까지다. 1960년 당시 시흥군은 모두 8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63년에는 신동면과 동면이 서울시로 편입되었다. 또한 화성군 일왕면이 시흥군에 편입되어 의왕면이 되었다. 1973년에는 부천군으로부터 소래면이 시흥군에 편입되고, 안양읍은 시로 승격하였다. 1979년에는 남면·의왕면·서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하여 군포읍·의왕읍·소하읍이 되었고, 군자면과 수암면의 일부가 경기도 반월출장소로 승격하여 1986년 안산시가 되었다. 1981년에는 소하읍이 광명시로 승격하였고, 1982년에는 과천면이 경기도 과천출장소로 승격한 후 1986년에 과천시가 되었다. 그리고 1989년에 시흥군은 세 개의 시로 분리되는데, 군포읍은 군포시로, 의왕읍은 의왕시로, 나머지 소래읍·군자면·수암면은 시흥시가 되었다.



현대 지형도에 표시한 조선 후기 군포 지역 주변 경계



1960년 시흥군



1963년 시흥군



1973년 시흥군



1982년 시흥군



1989년 시흥군의 해체와 읍면의 시 승격

두 번째로 시 승격 이후를 살펴보자. 시흥군 군포읍은 법률 제4050호(1988년 12월 31일 공포)에 의해 1989년 1월 1일 군포시가 되면서 법정동으로 당동, 부곡동, 당정동, 산본동, 금정동 등 5개 동을 두었다. 또한 금정동과 당정동에 각각 행정동을 설치하고, 당동 일부에 군포1동을, 당동 일부와 부곡동에 군포2동을, 산본동에 산본1동과 산본2동을 설치하는 등 6개 행정동을 두었다. 이후 산본2동은 산본2동·광정동·수리동·궁내동으로, 금정동은 금정동·재궁동·오금동으로 분화하였다. 그



1989년 법정동



1989년 행정동



1994년 이후 법정동

중 오금동은 법정동인 산본동의 일부 영역을 포함하여 관할하고 있다. 1994년 12월 26일에는 화성군 반월면 소속의 대야미리·속달리·도마교리·둔대리를 편입하면서 이들 4개 리를 각각 법정동으로 하고, 이를 관할하는 행정동으로 대야동을 설치하였다. 마지막으로 1998년에 당정동을 군포1동에 편입하였다. 이로써 군포시는 9개 법정동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행정동 체제를 갖추었다.



1994년 행정동



1998년 이후 행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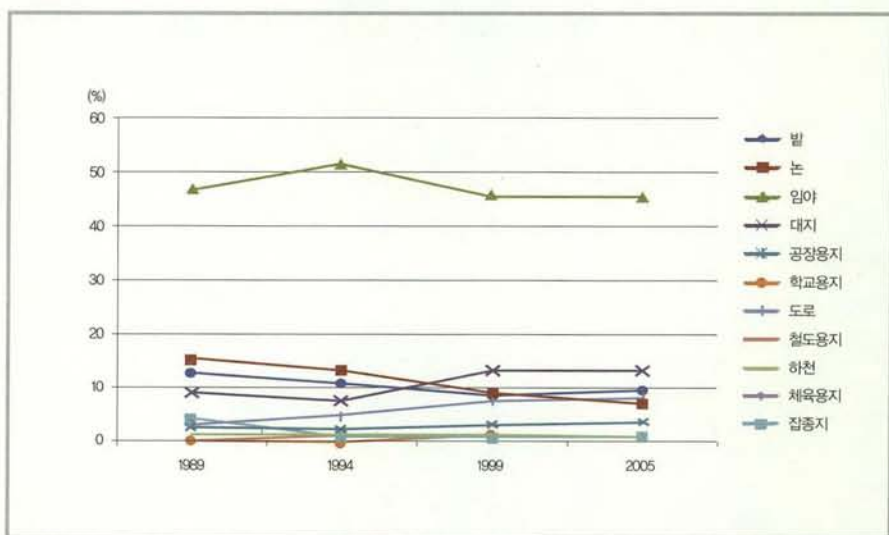
이와 같이 1960년부터 2005년까지의 시간 범위와 시흥군 및 군포시 영역을 아우르는 공간 범위 안에서 먼저 각 시기별 행정구역도를 종이지도 위에서 복원하였다. 이를 디지털이정하여 전자지도화한 후 통계연보에 수록된 각종 사회 지표를 속성 정보로 입력하여 최종적으로 주제도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중심으로 군포시의 경관 변화를 읽어 보고자 한다.

3. 토지의 변화

1) 주요 지목의 비율

1989년부터 2005년까지 군포시의 전체 지목 가운데 임야는 언제나 45%를 넘으면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해 왔다. 이어서 논, 밭, 대지가 30%대를 유지하면서 이들 네 지목이 전체의 75~85%를 구성해 왔다. 그중 대지의 구성비는 1999년 시점에서 논·밭보다 높아졌고, 2005년에는 밭이 논을 앞질러 세 번째로 넓은 지목이 되었다. 논은 지속적으로 구성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만큼

논의 시가지화가 활발했음을 알려 준다. 이 밖에 구성비가 높은 지목으로는 도로와 공장용지, 잡종지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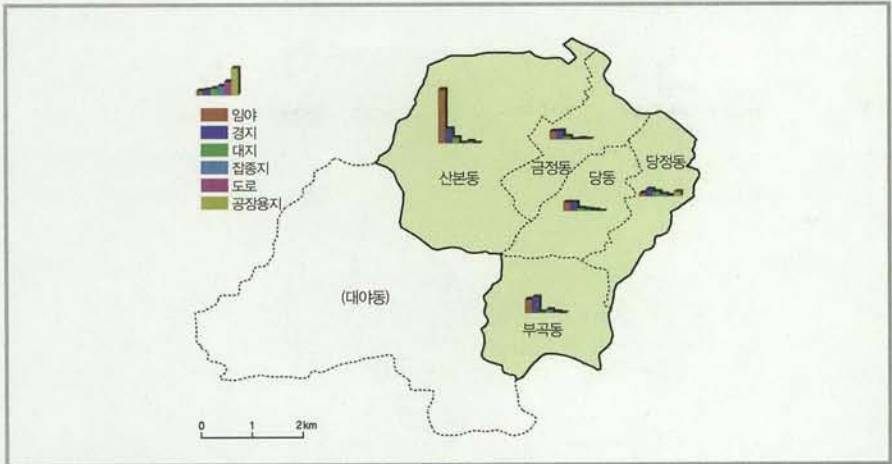


주요 지목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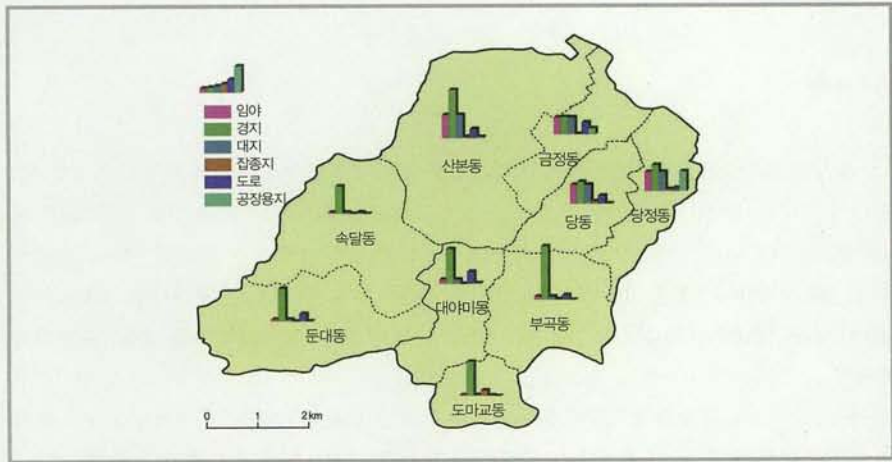
1989년 산본동은 임야율 부문이 탁월하게 높았고, 다른 동은 경지율(논+밭)이 임야율보다 높거나 비슷했다. 당정동은 임야보다도 대지와 공장용지가 더 많아서 특징적이다. 경부선을 따라 군포시의 공장지대가 당정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1994년 시점에 산본동은 임야율이 크게 낮아진 대신 경지율이 높아졌고, 부곡동과 대야동의 네 법정동은 특히 경지율이 높았다. 금정동·당동·당정동은 경지율이 약간 앞선 가운데 임야율과 대지율이 서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1999년 이후로는 산본동·금정동·당동에서는 경지율이 낮아지고 대지율이 증가하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이 시기에는 제3의 지목으로 도로가 대두되었다. 도로율의 증가 역시 주거지 및 사무·상업지구의 확산을 의미하는 주요 지표이다. 당정동의 공업용지는 1994년 수위를 차지했던 경지율을 앞질러 1999년 시점에서는 동 내에서 가장 넓은 지목이었다. 둔대동과 대야미동, 부곡동에서도 공장용지가 경지율 다음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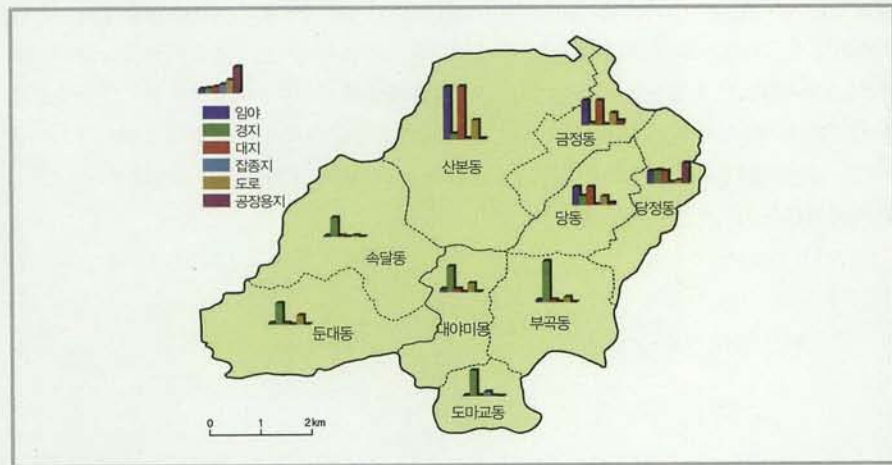
대지의 증가율을 통해서 전반적인 지목의 변화를 종합하면, 분석 기간 동안 대지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곳은 산본동이고, 금정동과 당동도 증가율이 높았다. 이체로운 곳은 당정동으로, 이곳은 대지율이 1989년과 1994년 사이에는 증가하였으나 이후로는 감소하였고, 공장용지는 증가하였다. 이는 분석기간 동안 산본동과 금정동, 당동을 중심으로 시가지화가 확산되었고, 당정동을 중심으로 공업화가 좀 더 강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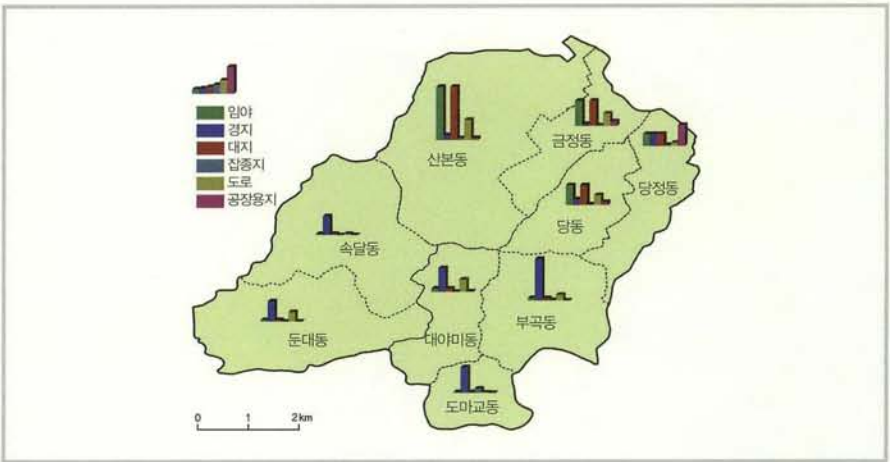
1989년 동별 지목 분포



1994년 동별 지목 분포



1999년 동별 지목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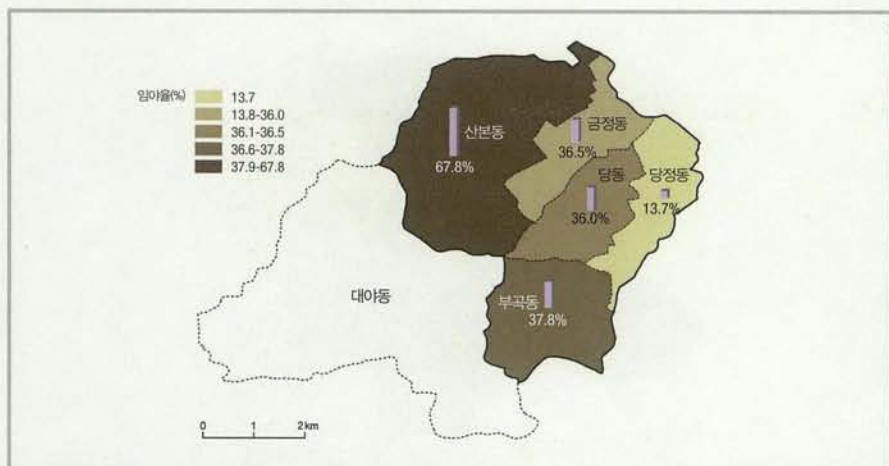


2005년 동별 지목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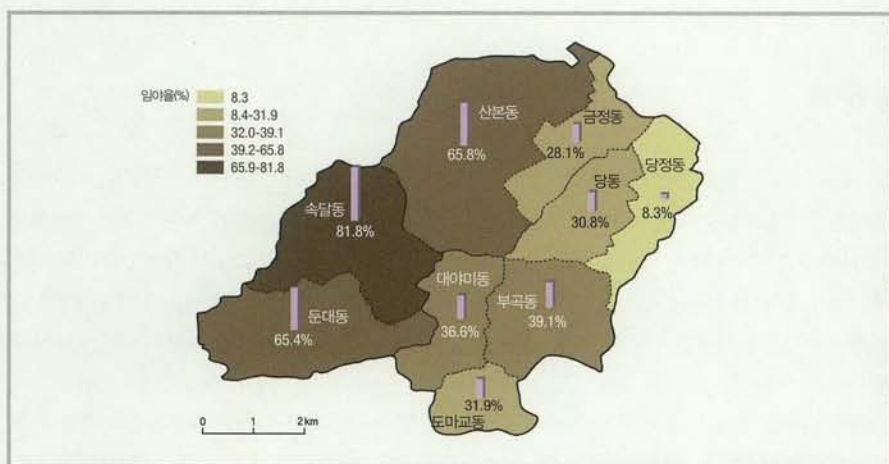
2) 임야율

도시 내 임야율은 도시화 정도를 알려 주는 지표의 하나가 된다. 군포시의 지목 가운데 임야의 구성비를 보면, 1989년 46.7%, 1994년 51.3%, 1999년 45.8%, 2005년 45.5%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45~46%를 차지하는 가운데 1994년에 임야 비율이 증가한 것은 이 해에 시 전체 면적의 42.2%에 달하는 농촌 지역인 대야동을 편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야 비율은 1995년에 다시 46.2%로 낮아지고, 이후로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이는 택지개발사업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시가지 개발의 영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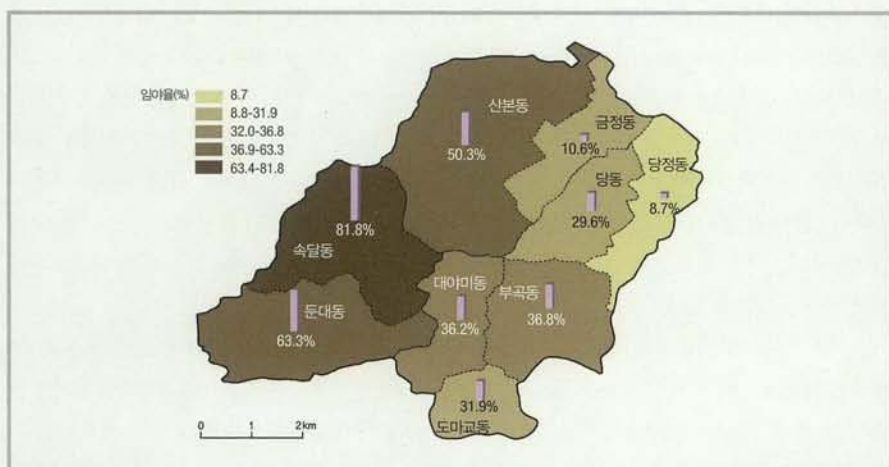
이러한 변화는 각 동의 임야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989년과 1994년 사이에 금정동은 36.5%에서 28.1%로, 당동은 36.0%에서 30.8%로, 당정동은 13.7%에서 8.3%로 줄어들었다. 이 시기에 이들 동에서 시가지 개발이 상대적으로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다른 동에 비해서 1989년 당정동의 임야율은 13.7%에 불과하다. 지세 자체가 낮기도 하거니와 당정천과 경부선 철로 주변으로 일찍부터 공장들이 대거 입지하였기 때문이다. 1994년과 1999년 사이에는 산본동이 65.8%에서 50.3%로 크게 줄어들었고, 금정동도 28.1%에서 10.6%로 감소폭이 매우 컸다. 이는 산본 신도시 건설로 인한 대지율 증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동에서는 임야율 변화가 거의 없다. 1999년과 2005년 사이에 임야율은 변화가 거의 없다. 그러나 도시화 또는 택지화가 중단된 것은 아니고, 이 시기에는 임야 외에 다른 지목이 많이 잠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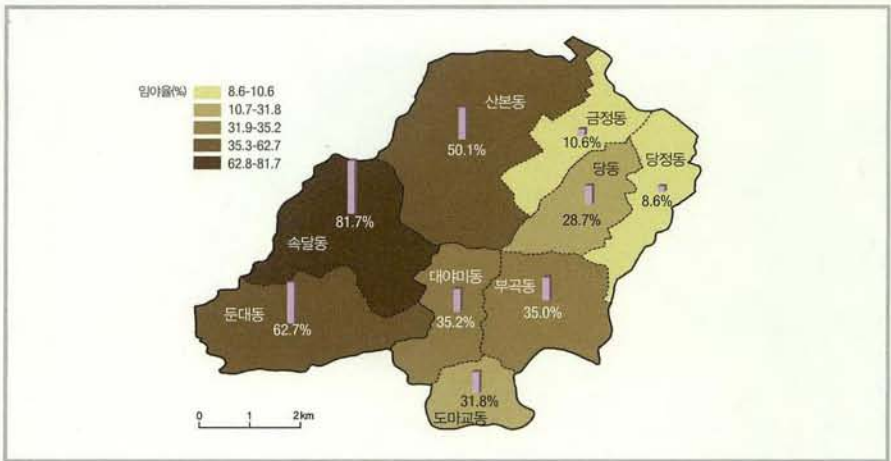
1989년 임야율



1994년 임야율



1999년 임야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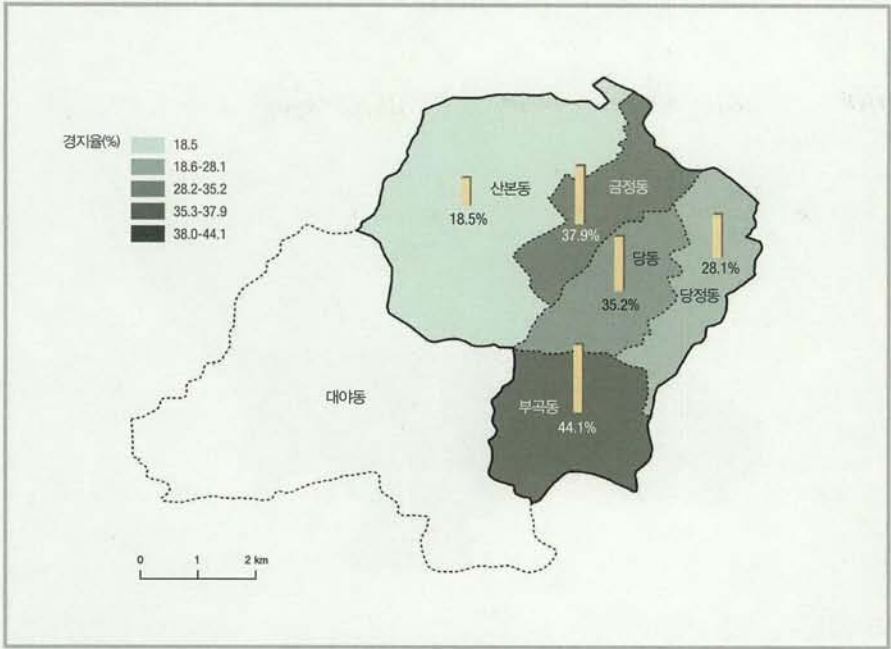
2005년 임야율

3) 경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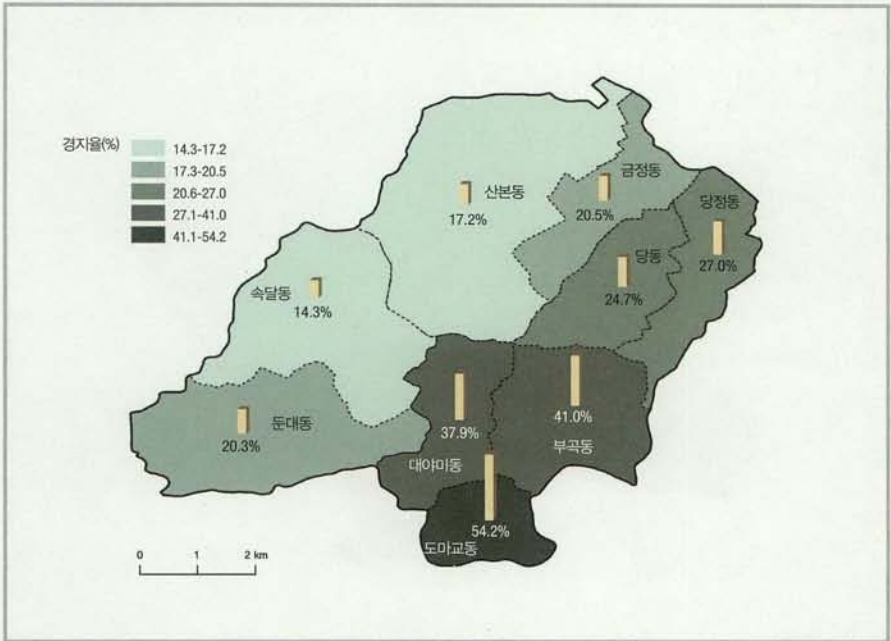
군포시의 지목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임야이고 두 번째가 경지(논+밭)이다. 1989년 경지율은 29.2%였으나 1994년 24.9%, 1999년 18.2%, 2005년 17.1%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1999년 대비 2005년에 임야율이 0.3%p 줄어든 것에 비해 경지율은 1.1%p가 줄어들었다. 절대면적도 경지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한 점으로 미루어 이 기간 동안의 도시화는 임야보다는 농경지를 잠식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같은 시기에 전체 경지면적은 감소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밭의 구성비가 증가하는 현상이 흥미롭다. 즉, 경지를 구성하는 논과 밭 가운데 밭은 그 구성비가 8.8%에서 9.4%로 증가한 것이다. 전체 면적이 줄어든 상황에서 밭의 구성비가 증가한 사실은 논 감소가 그만큼 두드러졌다는 것을 알려 준다.

1989년부터 시점별로 논·밭의 구성비를 보면, 15.7% → 13.6% → 9.4% → 7.7%로 감소하였고, 절대면적은 1989년에 3,25km², 대야동을 편입한 1994년에 4,89km², 1999년에 3,42km², 2005년에 2,80km²으로 변화되었다. 1994년부터 2005년까지 2,09km²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5년 군포시 전체 지목의 5.8%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논은 산지 사면을 개간하여 조성하기도 하지만, 주요 평야는 하천 연안의 충적지가 핵심이 된다. 벼는 물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지면을 평평하게 고른다. 이처럼 논은 평탄화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택지로 개발하기에 훌륭한 조건을 갖춘 대상이 된다. 이에 군포시뿐 아니라 일산·분당·평촌 등 한국의 대단위 신도시는 모두 하천 연안의 충적지, 즉 논에 기반하여 건설되었다. 결론적으로 군포시의 시가지 개발은 임야보다는 경지, 그중에서도 논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동별 경지율 변화를 보면, 1994년과 1999년 사이에 산본동은 17.2%에서 2.8%로, 금정동은 20.5%에서 3.3%로 급감하였다. 이는 산본 신도시 개발의 결과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외에 당동은 24.7%에서 13.9%로, 당정동은 27.5%에서 18.8%로 낮아져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큰 편이었다. 1999년과 2005년 사이에 경지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당동이다. 대야동을 구성하는 네 법정동은 기본적으로 임야율과 경지율이 높고, 각 절대면적의 감소폭도 작아 군포시에서 시가지 개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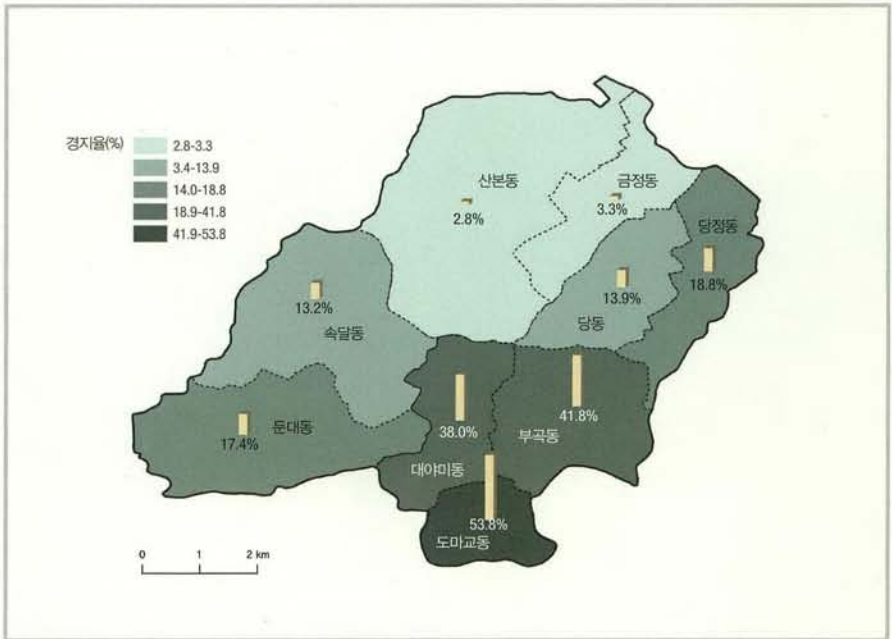


1989년 경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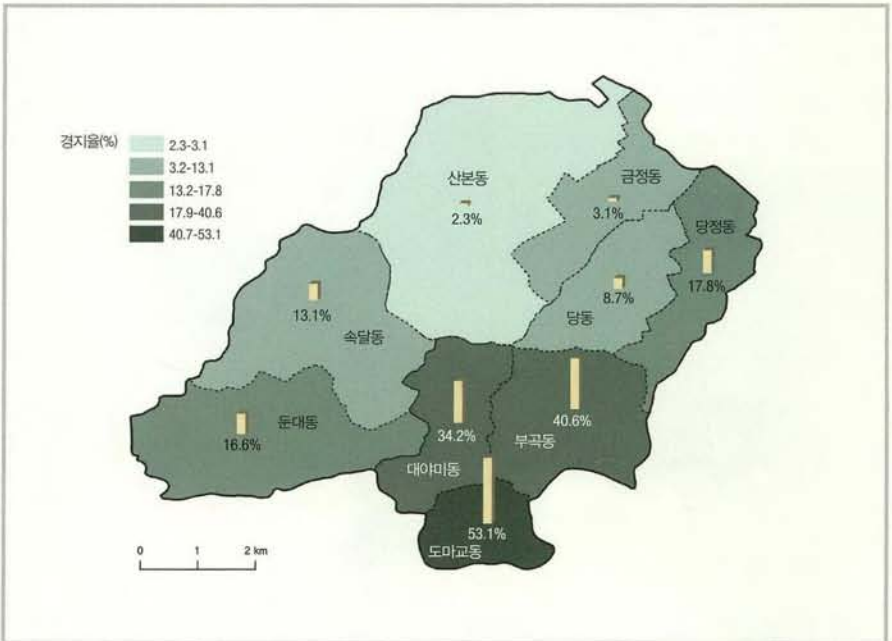


1994년 경지율

가장 미미한 곳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상황은 대야동이 군포시에서 개발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임을 시사한다.



1999년 경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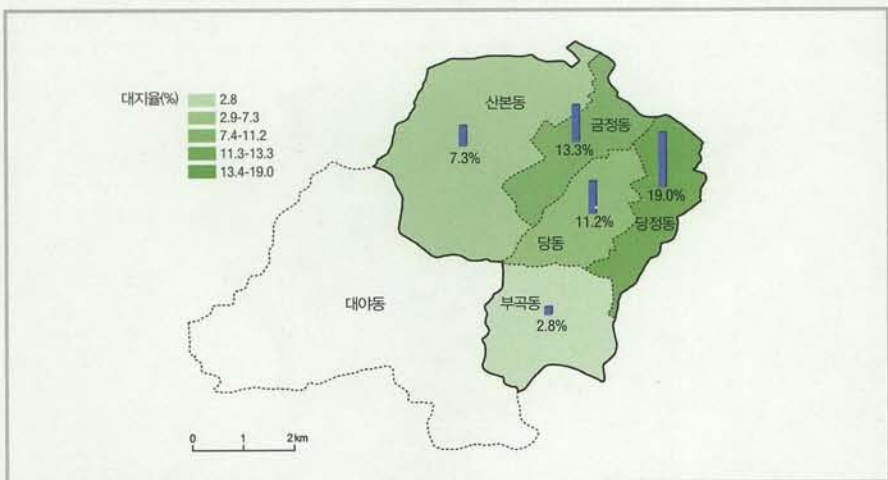
2005년 경지율

4) 대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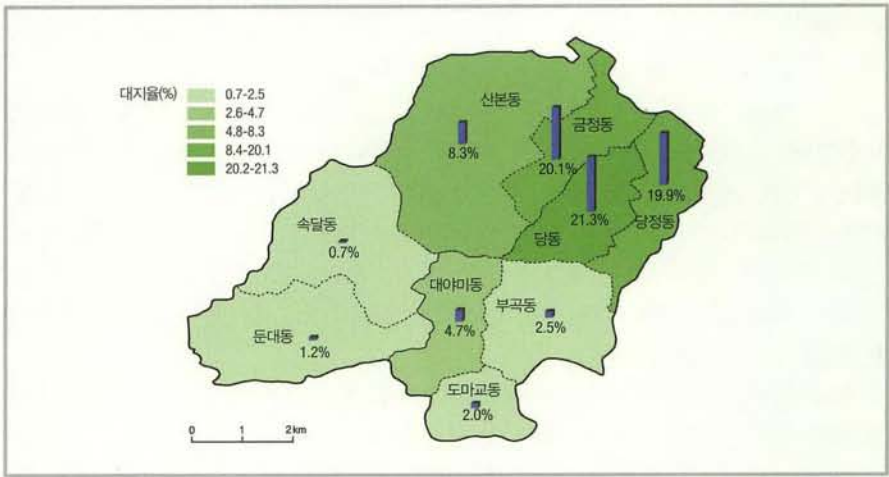
건축법에 규정된 대지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일컫는다. 따라서 대지의 점유율은 대체로 변화한 곳일수록 높고, 도시화구역이 넓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분석 시점을 기준으로, 군포시의 대지 면적은 1999년 이후 증가세가 약화되었지만, 1989년 1,92km², 1994년 2,77km², 1999년 4,81km², 2005년 4,83km²로 계속 증가해 왔다. 그러나 전체 지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9.3%, 7.7%, 13.2%, 13.3%로 나타난다. 1994년에 7.7%로 그 전 시점보다 감소한 것은 대야동 편입의 결과이다. 한편, 1994년과 1999년 사이에 가파르게 상승한 대지율의 증가는 산본 신도시 개발 등으로 시가지가 확산된 상황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동별로 보면, 1989년 대지율이 가장 높은 곳은 19.0%인 당정동이고, 반대로 가장 낮은 곳은 2.8%에 불과한 부곡동이였다. 1989년과 1994년 사이에는 당동과 금정동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당동은 11.2%에서 21.3%로, 금정동은 13.3%에서 20.1%로 증가하였다. 이는 1980년 3월부터 1990년 12월까지 시행된 안양8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가 반영된 때문으로 보인다. 시가지와 대지는 거의 대부분 주거지나 상업용지로 이용되는데, 금정동은 이 시기에 금정역 개통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중심지였던 당동과 더불어 군포시의 대표적인 변화가가 되었다. 이에 비해서 1994년에 대야동의 4개 법정동과 부곡동의 대지율은 대야미동의 4.7%를 제외하면 모두 1~2%대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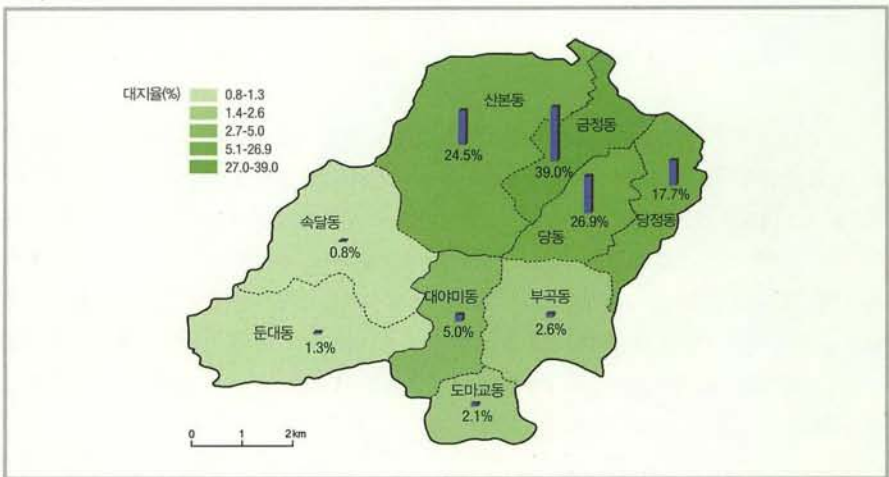
1994년과 1999년 사이에 대지율은 금정동이 39.0%로 더욱 높아져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다. 한편 증가율의 측면에서는 산본동이 8.3%에서 24.5%로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이 기간 내 금정동과 산본동에서 아파트 단지와 상가·사무실·금융기관 등의 시가지 개발이 활발했음을 짐작케 하는데, 이는 산본 신도시 개발의 결과이다. 1999년과 2005년 사이에는 동별로 약간의 증감이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는 정체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군포시의 시가지가 이제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잘 확산되지 않음을 알려 준다. 이 상황이 되면 원 취락지나 초기에 형성된 시가지는 곧 재발이나 리모델링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 산본 구주공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나 군포뉴타운과 금정뉴타운 사업의 대두가 그러한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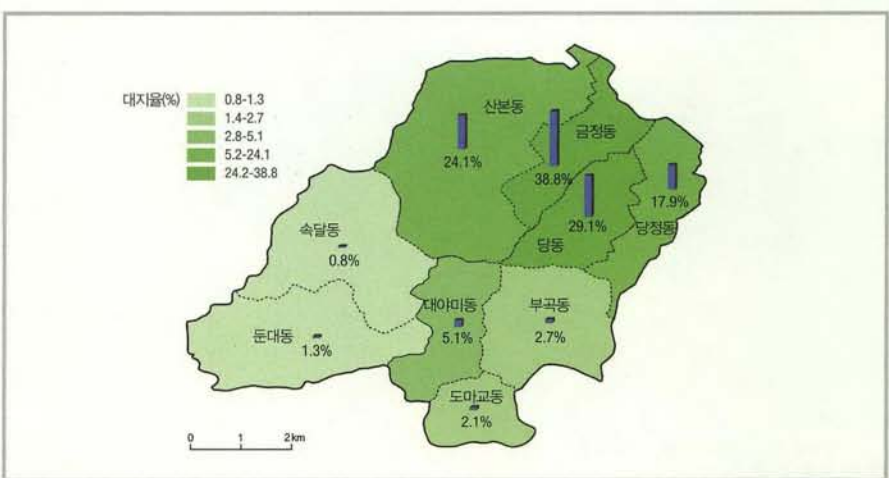
1989년 동별 대지율



1994년 동별 대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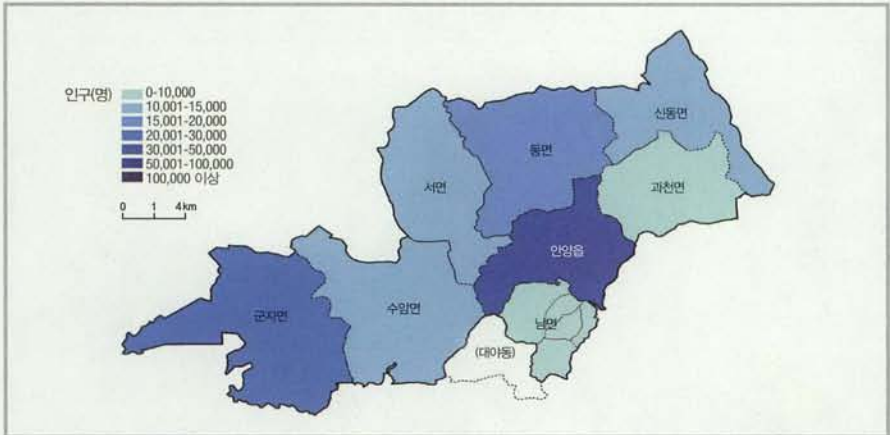
1999년 동별 대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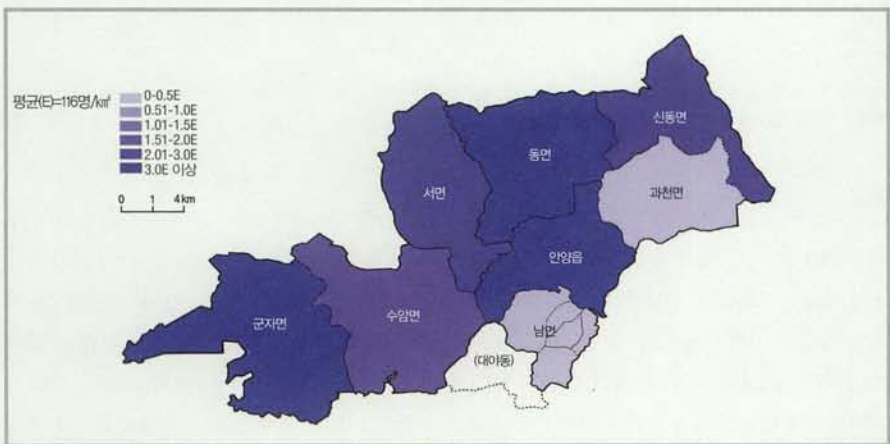
2005년 동별 대지율

4. 인구의 변화

안양읍을 제외하면, 1960년 시흥군은 아직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산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구밀도의 측면에서 안양읍은 시흥군 읍면 평균의 6배에 달했고, 군자면과 동면도 3배 이상 높았다. 분석 시점 중 군포시의 전신인 남면에 인구집중현상이 나타난 것은 1974년 이후이다. 1969년까지 남면의 인구는 1만 명을 넘지 못했고, 인구밀도도 평균보다 낮았지만, 1974년에는 인구가 2만을 넘으면서 서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인구밀집지역으로 대두되었다. 읍으로 승격한 1979년에는 인구가 20만을 넘어서 서면에 이어 두 번째였다. 소하읍과 군포읍의 인구 차이는 컸지만, 군포읍의 관할 면적이 소하읍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좁았기 때문에 인구밀도의 격차는 크지 않았다. 1984년 시점에는 의왕읍 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행정구역의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인구밀도는 시흥군 관내에서 군포읍이 가장 높았다.



1960년 시흥군 인구 분포



1960년 시흥군 인구밀도



1979년 시흥군 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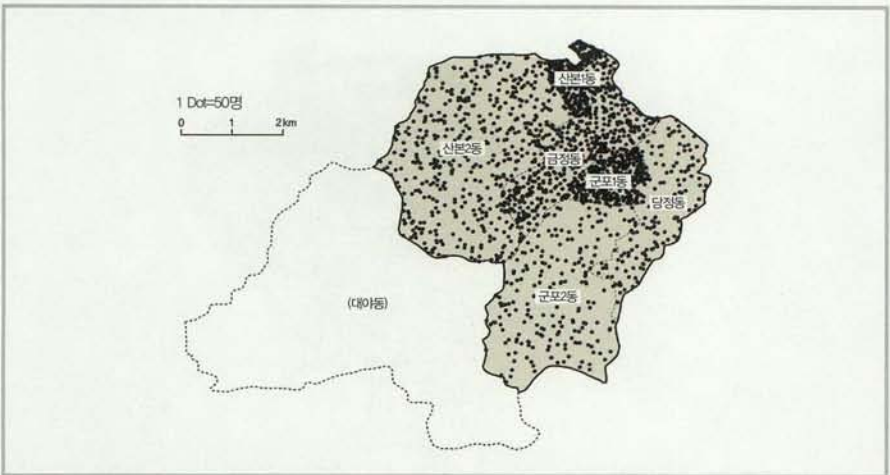


1979년 시흥군 인구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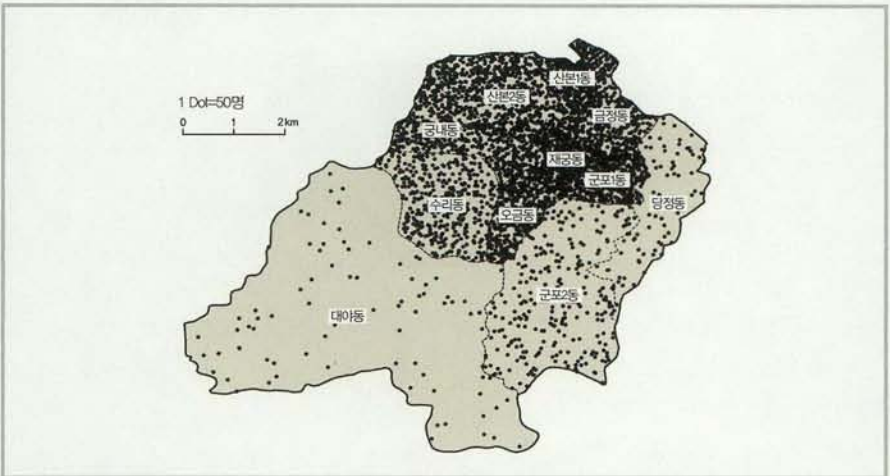
군포읍이 군포시로 승격한 1989년 행정동별 인구는 금정동, 산본2동, 군포1동 순으로 많았다. 이에 1994년까지 금정동에서 재궁동이 분동하면서 산본2동 일부까지 관할하였고, 재궁동에서 오금동이 다시 분동하였다. 산본2동에서는 수리동과 궁내동이 분동하였다. 1994년 인구밀도는 재궁동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산본1동, 군포1동, 오금동이 뒤따랐는데, 이들 지역으로는 서울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의 연장노선이 지난다. 특히 서울지하철 4호선과 연결되는 수도권전철 안산선을 따라 산본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이들 동의 인구밀도가 급격히 신장한 것이다. 한편, 1994년 12월에 화성군 반월면 소속 4개 리가 편입되어 대야동이 되었지만, 인구밀도는 전체 평균의 4% 수준에 불과하였다.

1999년 인구밀도는 산본1동이 수위를 차지하였고, 재궁동, 오금동, 산본2동이 그 뒤를 이었다. 1994년 대비 군포1동이 탈락한 대신 산본2동이 오른 꼴이다. 군포1동이 떨어진 이유는 당정동을 병합했기 때문인데, 병합 직전 당정동의 인구밀도는 군포시 평균의 24% 수준으로 대야동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산본2동은 1995년 2월에 광정동이 분동할 때 관할면적의 62%를 떼어주었다. 이에 인구밀도는 1994년에 비해서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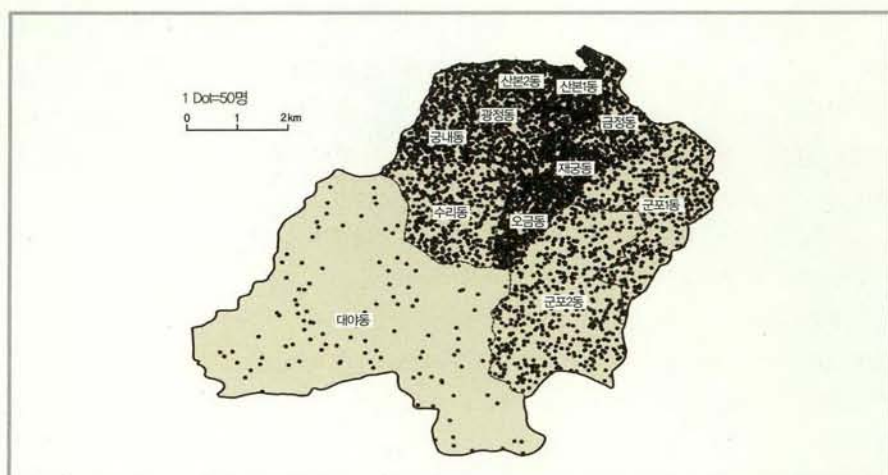
2005년 인구는 군포2동과 군포1동이 각기 3만 8,000명과 3만 4,000명을 넘었고, 대야동을 제외한 8개 동이 모두 2만 명 대로 균등해졌다. 이러한 와중에 인구밀도는 여전히 산본1동, 재궁동, 오금동이 평균의 3배가 넘었다. 전체적으로 1989년 상황에서 산본1동과 군포1동을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가 1994년 시점에는 금정동 및 여기서 분동한 재궁동·오금동에 인구집중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99년 이후로도 산본2동, 재궁동, 오금동이 여전히 군포시의 인구밀집지역으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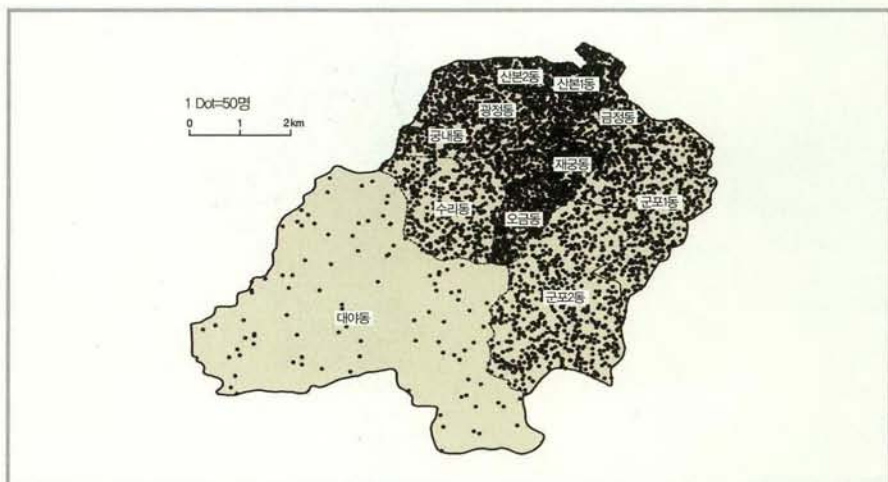
1989년 동별 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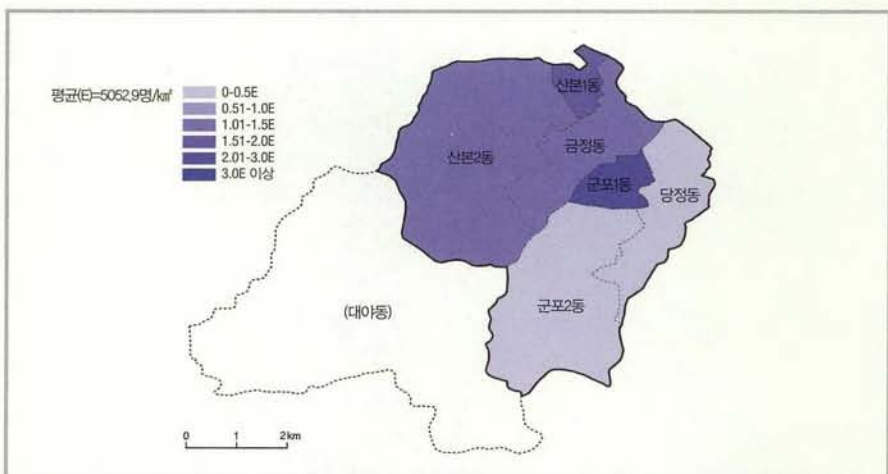
1994년 동별 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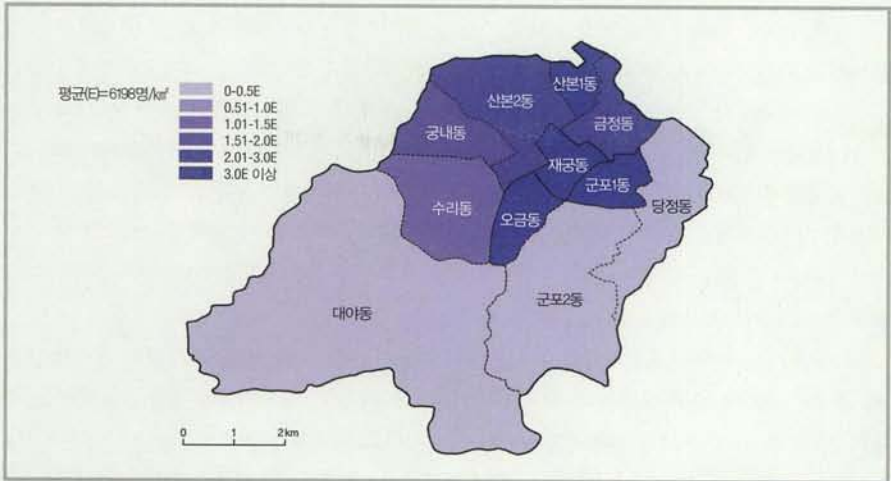
1999년 동별 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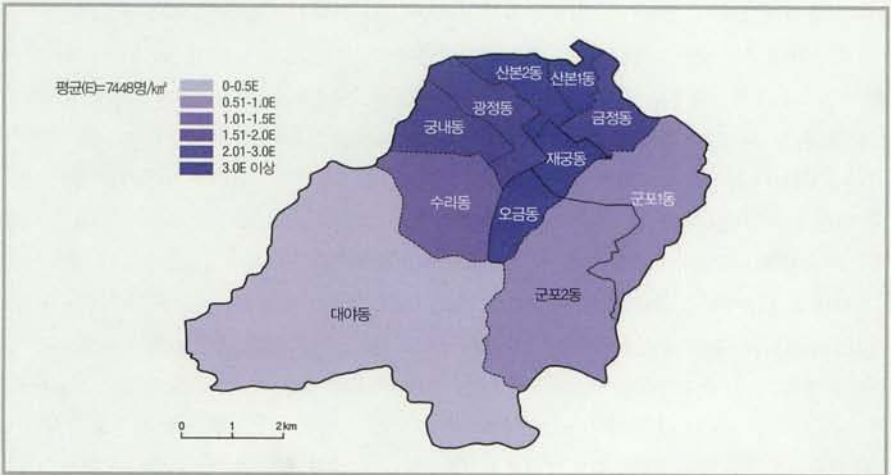
2005년 동별 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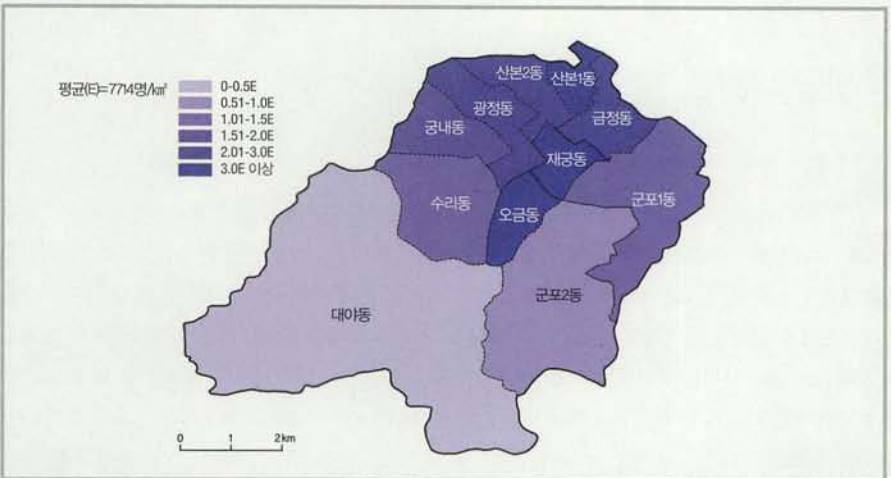
1989년 동별 인구 밀도



1994년 동별 인구밀도



1999년 동별 인구밀도



2005년 동별 인구밀도

한편, 1960년 시흥군 인구 12만 2,615명 가운데 남면의 인구는 6,145명으로, 그 구성비가 5%에 불과하였다. 안양읍이 25.8%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군자면과 동면이 16%대, 그리고 서면과 수암면이 10~11%대였으며, 신동면과 과천면은 10%를 넘지 못하였다. 이후 안양읍의 인구비는 더욱 높아져 인구집중이 심화되었고, 남면은 안양읍이 시로 승격한 이후인 1974년에 10.7%를 기록하였다. 군포읍으로 승격한 1979년의 인구비는 13.2%로, 소하읍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 시기에는 안양시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공업화의 물결이 군포 지역으로 넘어오면서 인구집중이 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안양시·광명시·과천출장소가 이미 시흥군에서 분리된 1984년에 군포읍의 인구비 29.1%는 의왕읍의 35.2%에 밀려 여전히 2위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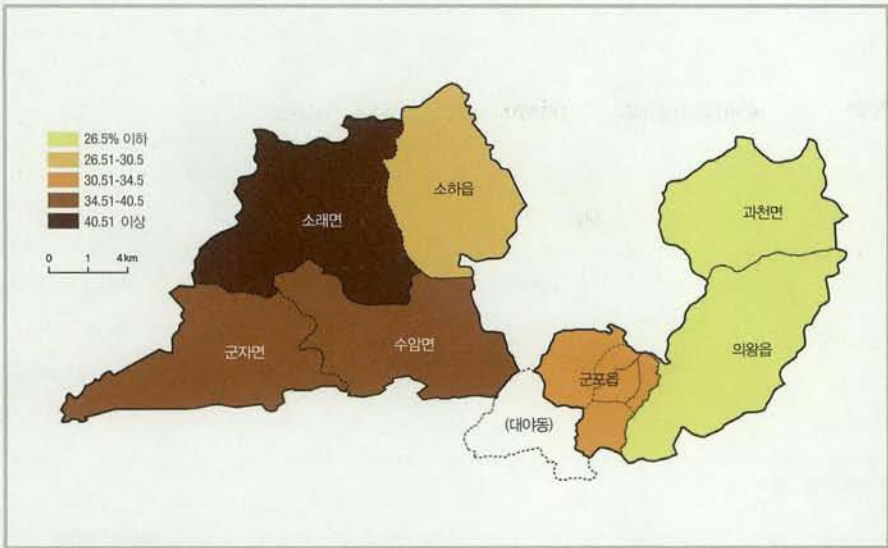
1989년 시 승격 후 군포시의 동별 인구비가 가장 높은 곳은 금정동으로 23.9%였고, 이어서 산본2동 22.0%, 군포1동 20.4% 등이었다. 당시 설치된 6개 행정동 가운데 3개 동에 전체 인구의 66.3%가 몰려 있었는데, 이들 동의 관할 면적은 전체의 47.7%였다. 1994년에 인구비가 가장 높은 곳은 산본2동으로 19.5%였고, 당정동과 대야동은 1.9%에 불과하였다. 이 외에 재궁동·오금동·군포1동이 10.2~12.7%대로 2위 그룹을 구성하였고, 나머지 궁내동·금정동·산본1동·수리동·군포2동이 5.8~9.8%대에 몰려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인구의 집중현상이 두드러지지는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1999년 시점에서는 더욱 완화되었다. 여전히 수위는 11.1%인 산본2동이 차지했지만 인구비와 함께 집중성도 크게 낮아졌다. 오금동, 광정동, 재궁동, 군포1동도 10.1~11.0% 사이에서 산본2동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인구가 3만 89명으로 가장 많은 산본2동과 2만 7,244명으로 5위를 차지한 군포1동의 차이는 2,845명에 불과하였다. 대야동은 인구비가 상승했지만, 2.1%로 여전히 낮았다. 다른 동과 달리 대야동은 아직까지 농촌적 경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야동을 제외하고는 순차적으로 도시개발이 진행되어 전반적으로 고르게 시가지가 조성되었음을 알려 준다.

2005년 시점에서는 군포2동의 약진이 돋보인다. 군포2동은 1999년에는 인구비가 9.6%로 6위였지만, 2005년에는 13.8%로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군포1동이 12.2%, 광정동이 10.6%로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동 중 대야동을 제외한 7개 동은 7.6~9.9% 수준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종합하면, 시 승격 이후 인구 구성의 중심성은 산본 신도시 개발로 서북쪽의 산본 신도시권으로 옮겨 갔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택지개발이 집중된 기존도시권으로 다시 옮겨 오는 양상을 보였다.

5. 산업의 변화

한국에서는 1960년대 초반 이른바 경제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요체는 경공업으로 시작하여 궁극에는 중화학공업으로 발흥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가장 먼저 공업화를 시행한 곳이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이었다. 인구학의 측면에서 그 결과 중 하나는 농업인구의 감소와 이촌향도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약간의 지체기간을 두고 1970년대부터 특징적으로 포착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군포 지역에서도 인구증가가 두드러졌고, 반면 경지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1979년 군포읍의 논 면적은 3,653km²이고 밭은 3,233km²로, 합이 6,886km²였다. 이를 정정보로 환산하면 약 694정보로 1960년 경지면적 약 763정보의 90%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지율, 즉 각 읍면의 관할 면적에서 경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1979년에 소래면·군자면·수암면이 높았고, 반대로 과천면과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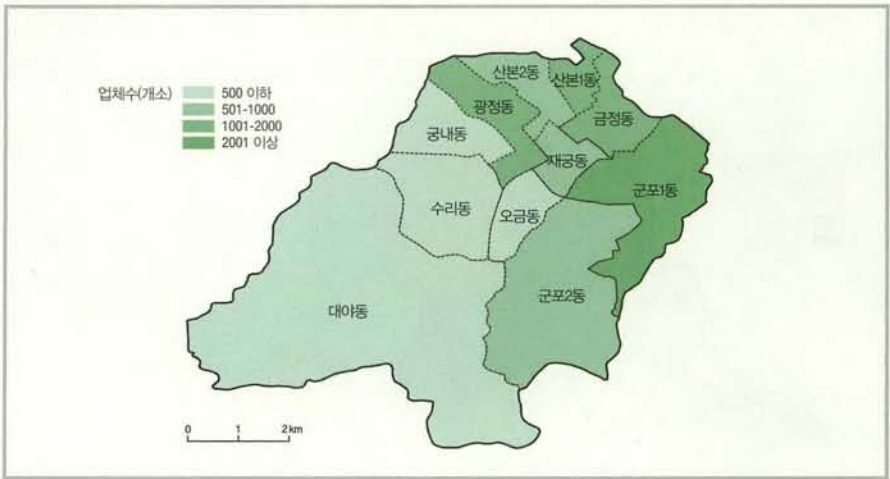
1979년 시흥군 읍면별 경지밀도

왕읍이 낮았으며 소하읍과 군포읍은 그 중간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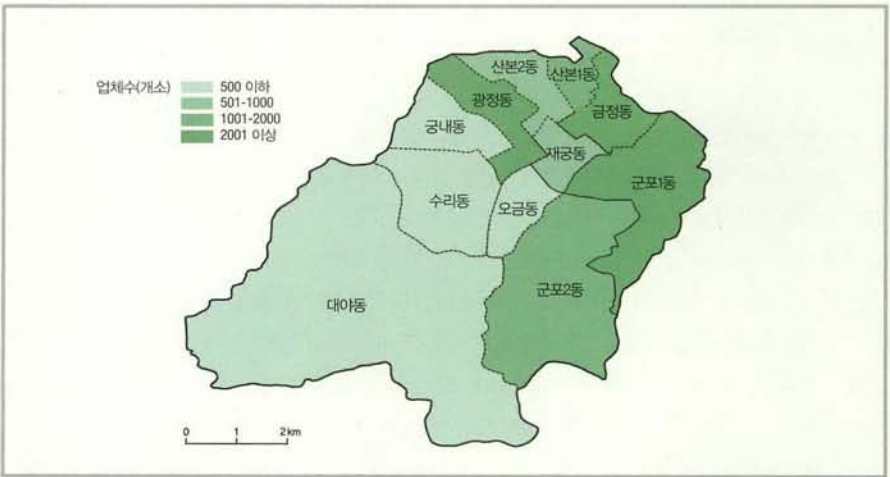
한편, 1980년대에는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로 인해 이미 상당한 수준의 공업화가 완료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군포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1980년대까지도 수도권 남부의 공업화는 주로 안양시의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군포 지역은 시 승격 후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후반에 급성장했는데, 이것은 이전 시기의 공업화와는 달리 상업화가 주도한 성장이었다.

현재와 같은 행정동이 완료된 1998년 이후의 분석 시점인 1999년과 2005년을 비교하면, 1999년 전체 사업체 1만 407개소 중 가장 많은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이하 도소매업)으로 2,599개였고, '숙박 및 음식점업' (이하 숙박음식업) 1,942개소, '제조업' 1,723개소 순으로 많았다. 동별로는 군포1동이 2,637개소로 가장 많았고, 금정동·광정동·산본동도 각각 1,000개소가 넘어 이들 4개 동이 전체 업체수의 71.5%를 차지하였다. 군포1동의 업체수는 동별 평균 946개소의 2.8배, 금정동·광정동·산본동은 1.7배에 달했다. 군포1동은 법정동인 당정동을 포함하는데, 당정동은 군포시에서 공업용지가 가장 넓은 곳이다. 군포1동에서 가장 많은 업종은 제조업이고, 이어서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순으로 많았다. 전체 제조업체 1,723개소 중 62.7%에 달하는 1,080개소가 군포1동에 집중되어 있었다. 업체가 적은 곳은 대야동으로 전체의 2.4%에 불과했고, 수리동 2.5%, 오금동 2.8% 등으로 그 비율이 낮았다. 대야동은 경지가 많고, 수리동과 오금동은 택지 및 상가가 발달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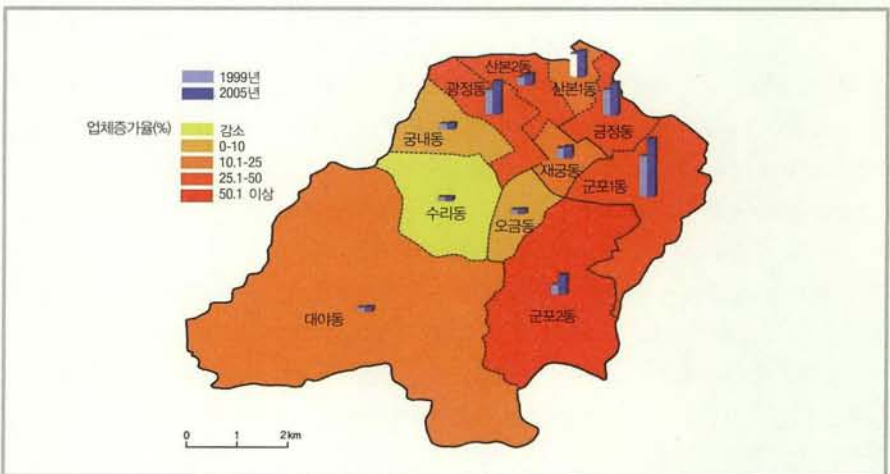
2005년에는 전체 업체수가 1만 3,713개소로 늘었다. 여전히 군포1동에 업체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광정동, 금정동, 산본1동 순이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2, 3위가 자리를 바꾸었다. 이들 4개 동의 업체수 비율은 70.8%로 1999년에 비해 집중도가 약간 떨어졌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다만, 군포1동의 업체수는 동별 평균 1,247개소의 3배를 살짝 넘겨 1999년보다 밀도가 더 강화되었다. 아울러 군포2동의 업체수도 1,000개소를 넘었는데, 1999년 대비 2005년 업체수 증가율은 109.1%로 전체 동 가운데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은 군포1동 42.9%였고, 이어서 산본2동 39.1%, 광정동 34.1% 등의 순이었다. 반면 수리동의 업체수는 오히려 2.7%p 감소하였다.



1999년 동별 사업체수



2005년 동별 사업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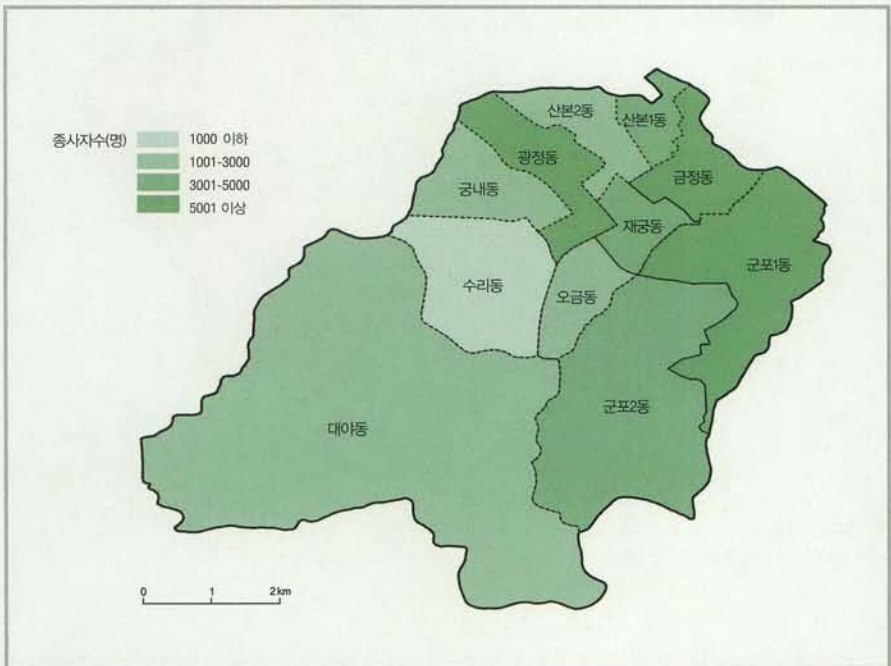
1999~2005년 사업체 증가율

업체수는 종사자와 함께 비교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9년 종사자수는 6만 327명으로, 이 가운데 2만 5,152명(41.7%)이 군포1동에서 근무하였다. 군포1동의 업체수 비율이 25.3%임에도 종사자수 비율이 41.7%에 달한다는 것은 이곳에 대형 업체가 몰려 있음을 의미한다. 이어서 금정동에 14.0%, 광정동에 13.0%, 그리고 산본1동에 7.7%에 달하는 종사자가 분포하였다. 종사자수 순위는 업체수 순위와 같은 양상이다. 이들 4개 동의 종사자수 비율은 전체 종사자의 76.5%로, 업체수의 비율보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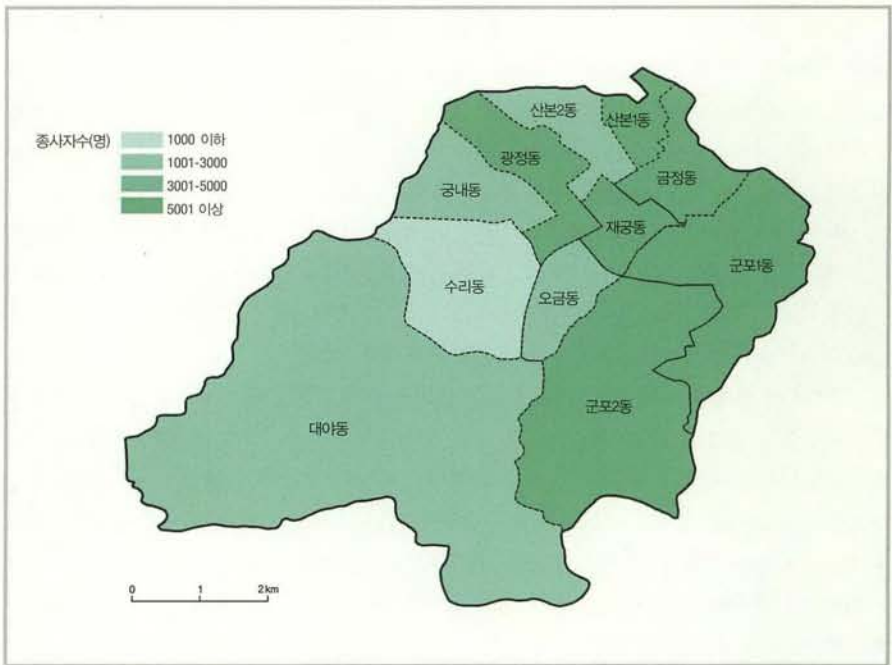
1999년에 시 전체 종사자수는 전체 인구 대비 22.3%에 달하였다. 이 가운데 군포1동의 종사자수는 동 인구의 92.3%에 달했고, 금정동이 42.5%, 광정동이 27.0%, 대야동이 19.4%, 산본1동이 18.4%에 달했다. 군포1동의 종사자수는 시 평균(5,484명)의 4.6배로 가장 많았고, 금정동이 1.5배, 광정동이 1.4배로 집계된 가운데 나머지 8개 동은 모두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2005년 시 전체 종사자수는 7만 9,450명으로, 이 가운데 군포1동에 37.2%(2만 9,591명)가 집중되었고 금정동, 광정동, 군포2동이 10%를 넘었다. 이들 4개 동의 종사자수 비율을 합치면 76.4%로 1999년과 같다. 군포1동의 종사자수 비율은 1999년 41.7%에서 2005년에 37.2%로 4.5%p 감소하였고, 군포2동이 산본동을 제치고 네 번째로 많은 종사자수를 보유하게 되었다. 군포1동의 종사자수는 시 평균의 4.1배에 달했지만 1999년보다는 낮았다. 이 외에 금정동이 1.7배로, 1999년 대비 종사자수가 많이 늘었고, 광정동이 1.4배, 군포2동이 1.2배 가량 평균 종사자수보다 많았다. 나머지 7개 동의 종사자수는 모두 평균 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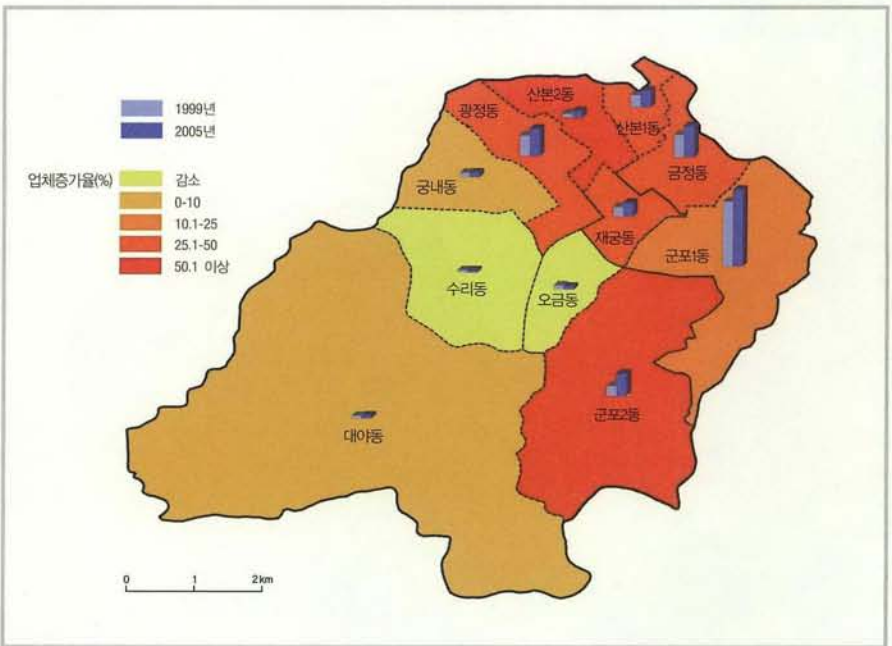
1999년 대비 2005년 종사자수 증가율은 업체수와 마찬가지로 군포2동에서 128.1%로 나타났다. 이어 증가율이 높은 곳은 60.1% 증가한 산본2동, 41.2% 증가한 금정동, 34.6% 증가한 산본1동, 그리고 32.4% 증가한 광정동 등이었다. 오금동은 27.6%, 수리동은 3.7%만큼 종사자수가 줄어들었다.



1999년 동별 사업체 종사자수



2005년 동별 사업체 종사자수



1999~2005년 사업체 종사자수 증가율

1999년 군포시의 사업체 업종 비율을 보면, 도소매업 25.0%, 숙박음식업이 18.7%, 제조업이 16.6%를 차지한다.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군포1동(41.0%)이고,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은 산본1동(31.4%, 25.0%)이, 운수업은 산본2동(20.7%)이, '부동산 및 임대업' (이하 부동산업)은 오금동

(13.4%)이, 교육서비스업은 궁내동(12.9%)이,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이하 개인서비스업)은 수리동(15.9%)이 각각 가장 비중이 높았다. 동별로 군포1동과 대야동(31.5%)은 제조업체가 가장 많았고, 나머지 9개 동은 모두 도소매업이 22~31% 수준에서 수위를 차지하였다.

2005년에 도소매업(2,692개, 19.7%)이 최대 업종인 것은 1999년과 같지만, 두 번째는 제조업(2,581개, 18.9%)이고, 세 번째가 숙박음식업(2,301개, 16.8%)으로 뒤바뀌었다. 1999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구성비가 줄어들었고 제조업은 늘었다. 제조업은 역시 군포1동(42.0%)에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은 광정동(23.9%, 22.7%)에서, 운수업은 군포2동(21.4%)에서, 부동산업은 궁내동(12.8%)에서, 교육서비스업은 오금동(14.6%)에서, 개인서비스업은 궁내동과 수리동(15.6%)에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동별로 보면, 광정동(23.9%)·궁내동(19.2%)·산본1동(25.1%)·산본2동(24.0%)·재궁동(21.3%)은 도소매업, 군포1동은 제조업, 군포2동·수리동(21.0%)·오금동(20.5%)은 운수업, 대야동은 숙박음식업(22.3%)이 최대 업종으로 나타났다. 1999년 최대 업종이 도소매업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에 반해 2005년에는 운수업이 약진하여 3개 동에서 수위를 차지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제조업 부문에서도 대야동 대신 금정동이 새로 등장하였다. 1999년과 2005년 모두 구성비가 가장 높은 부문은 군포1동의 제조업이다.

1999년 부문별 종사자수는 제조업이 2만 5,916명(43.8%)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서 도소매업이 7,724명(13.1%), 숙박음식업이 4,854명(8.2%), 교육서비스업이 4,332명(7.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업체수로는 도소매업이 많지만 종사자수는 역시 제조업이 다수를 차지한다. 동별 종사자 수가 40%를 넘는 업종은 군포1동(77.4%)·금정동(48.3%)·대야동(44.6%)의 제조업과 궁내동의 운수업(42.5%)이었다. 2005년에는 제조업 종사자수가 2만 9,027명으로 늘었지만 구성비는 36.9%로 줄었다. 도소매업도 8.2%로 줄어든 대신 숙박음식업은 8.2% 그대로 유지되었고, 운수업(5.7% → 7.0%)과 교육업(7.3% → 8.0%)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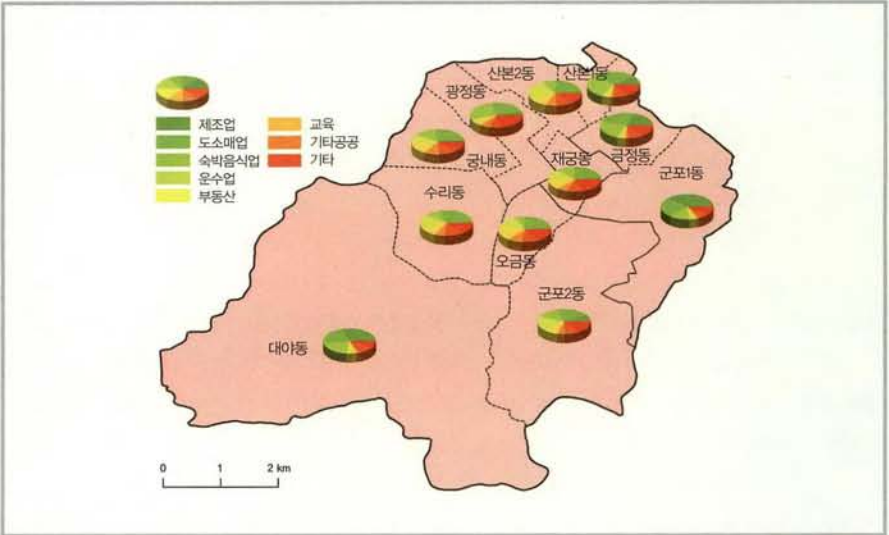
1999년 대비 2005년에 업체수와 종사자수 모두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제조업이지만 증가율은 운수업이 가장 높다. 제조업에서 종사자수의 증가율(12.0%)이 업체수의 증가율(49.8%)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영세 제조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생겨났음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성장한 부문은 운수업이다. 운수업은 업체가 거의 두 배 가량 증가하였고 종사자수의 증가율도 63.8%에 달했다. 한편, 자영업의 대표적인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그리고 교육서비스업은 업체의 증가율보다 종사자수의 증가율이 커서 동 기간 내에 이 업종에 취직한 사람들이 많았음을 보여 준다. 1개 업체 증가에 따른 종사자수의 증가는 도소매업이 14.9명, 교육업이 12.4명으로 많고, 이어서 숙박음식업이 4.4명, 제조업이 3.6명, 운수업이 3.4명으로 나타났다.

1999년 대비 2005년에는 궁내동과 수리동에서 교육업체수가 감소하였고, 산본1동과 재궁동은 업체수가 다소 증가하였지만 동별 구성비는 감소하였다. 교육업체수가 가장 큰 신장세를 보인 곳은 104개(21.0%)에서 161개(24.7%)로 늘어난 광정동이다. 두 번째로 많은 곳은 96개의 군포2동(14.7%)이고, 군포1동(73개, 11.2%)과 산본2동(60개, 9.2%)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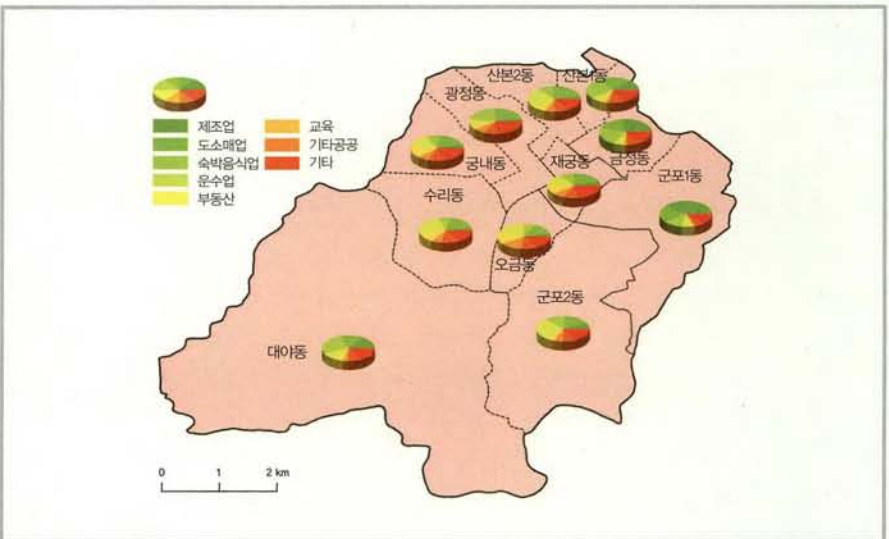
업종별 종사자수의 변동을 살펴보면, 제조업 종사자수는 금정동에서 가장 많이 늘었고 광정동과 대야동에서는 감소하였다. 도소매업 종사자수는 군포1동에서 가장 많이 늘었고, 수리동과 오금동은 감소폭이 컸다.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광정동에 가장 많지만, 가장 높은 신장세를 보인 곳은 군포2동이다. 궁내동과 산본1동은 감소하였다. 산본2동의 증가율도 두 배가 넘는다. 교육업 종사자수가 가장 많은 곳은 광정동이고, 가장 적은 곳은 대야동이다. 그러나 군포1동이 294%의 증가율을 보였고, 군포2동도 140% 증가하였다. 금정동과 재궁동은 미약하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보

였다.

군포1동만을 대상으로 1999년과 2005년의 업종 구성비를 살펴보면, 제조업·숙박음식업·교육·개인서비스업은 감소하였고, 도소매업·운수업·부동산업은 증가하였다. 종사자수 구성비는 제조업 외에는 모두 증가하였다. 제조업 종사자수는 1만 9,459명에서 1만 9,669명으로 다소 늘었지만 구성비는 77.4%에서 66.7%로 감소하였다. 부동산업과 교육서비스업은 증가율이 높은 부문이다. 부동산업은 93명에서 401명으로 331%, 교육업은 246명에서 970명으로 294% 증가하였다. 대단위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중개업과 학원이 상대적 호황을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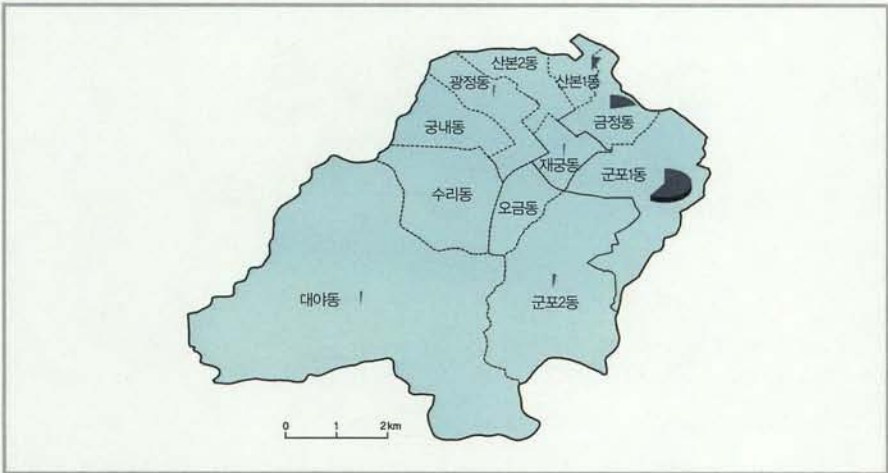
1999년 동별 주요 업종 사업체수 비율



2005년 동별 주요 업종 사업체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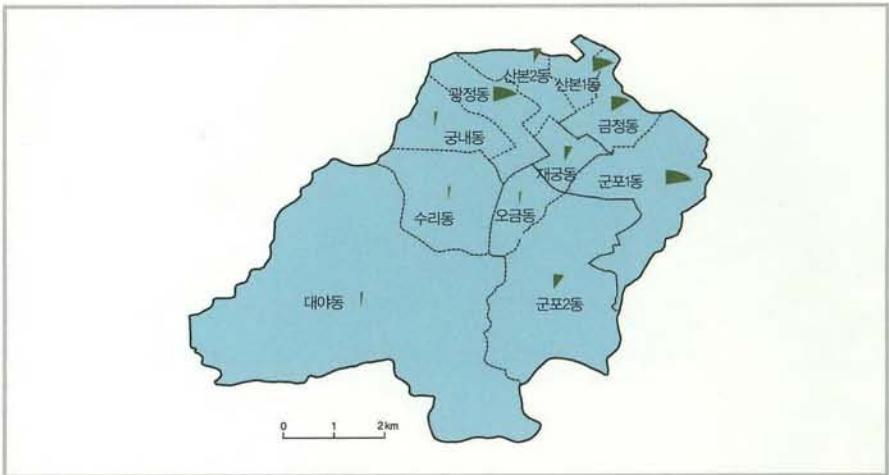
1999년 제조업체수 동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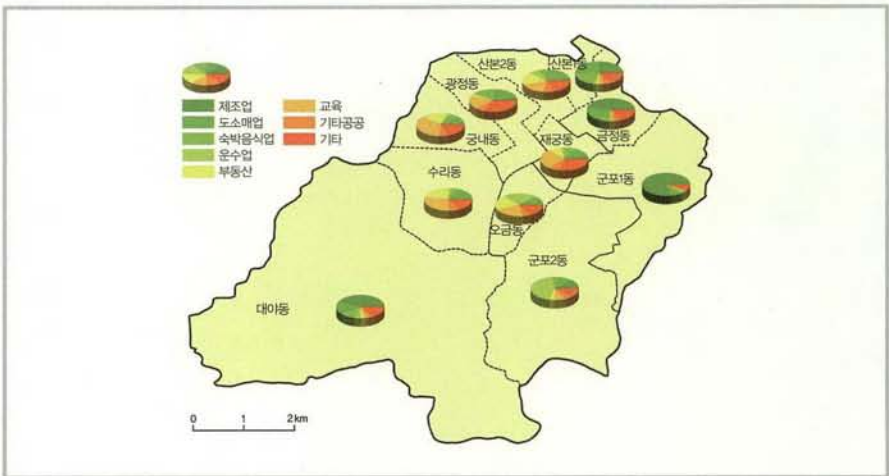
2005년 제조업체수 동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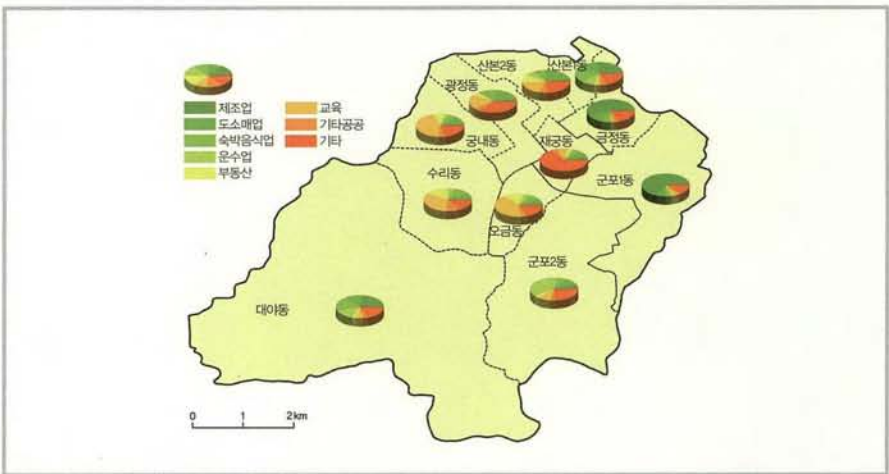
1999년 도소매업체수 동별 비율



2005년 도소매업체수 동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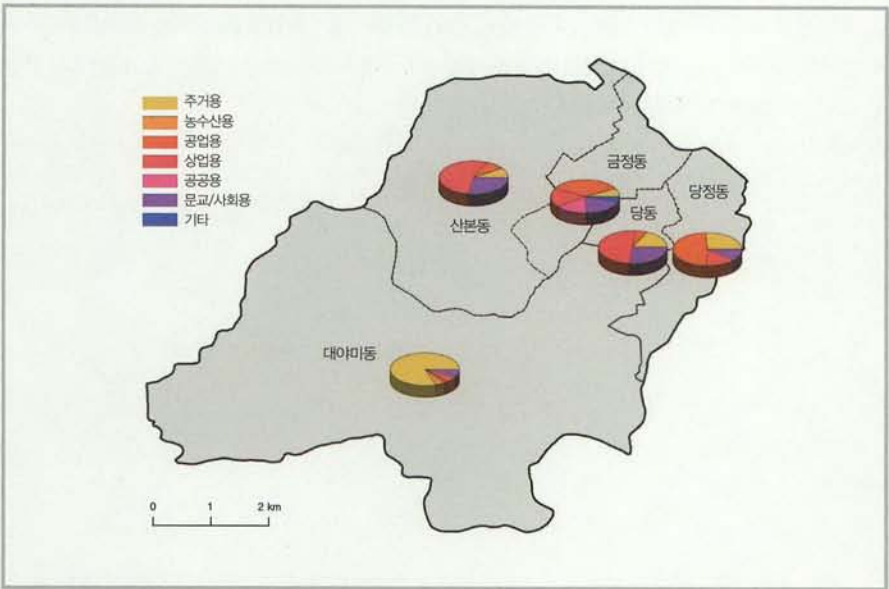
1999년 동별 주요 업종 종사자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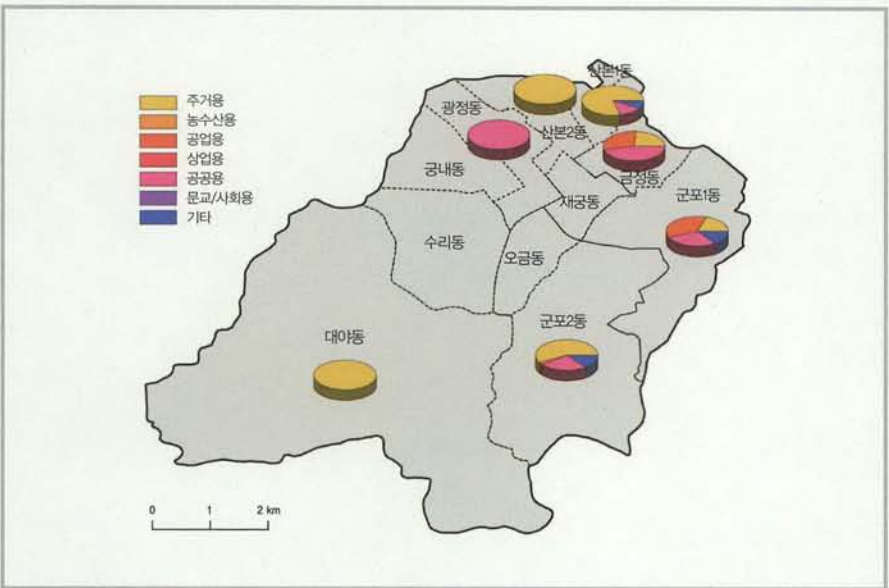
2005년 동별 주요 업종 종사자수 비율

6. 건축 허가

1999년 군포시에서 건축허가가 난 동수(棟數)는 모두 133동이다. 이 가운데 주거용이 52동으로 39.1%를 차지했고, 공업용이 26동 19.5%, 상업용이 42동 31.6%, 기타가 13동 9.8%였다. 연면적 기준으로는 주거용이 63.5%, 상업용이 19.2%, 공업용이 16.0%였다. 동별로 보면, 광정동에서는 오로지



1999년 동별 사업체수



2005년 동별 사업체수

상업용 건물만 접수되었고, 군포1동에서는 공업용과 상업용이 30%를 넘었다. 군포1동에서 공업용이 많이 접수된 것은 이 지역에 공장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군포2동에서는 주거용이 55.8%로 압도적이었는데, 1990년대 후반 이후 이곳에 주택건설이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외에 상업용이 30.2%를 차지했다. 대야동과 산본2동에서는 모두 주거용이 접수되었고, 산본1동에서도 주거용이 80%에 달했다.

2005년의 경우에는 274개동에 대해 건축허가가 났다. 역시 주거용이 77동으로 28.1%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업용이 75동 27.4%, 공업용이 61동 22.3%, 문교·사회용이 47동 17.2%를 차지했다. 연면적 기준으로는 주거용이 61.4%, 상업용이 12.3%, 문교·사회용이 12.0%, 공업용이 11.7%를 점유했다. 대야미동은 55동 가운데 81.8%인 45동이 주거용이었고, 상업용은 산본동 55.4%와 당동 50.0%의 순으로 높았다. 공업지역인 당정동은 공업용이 47.8%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금정동에서도 공업용이 38.0%를 차지했다.

여 백

제3장 통계로 풀어 보는 군포의 요모주모

나중환 | 중부일보 군포·의왕 담당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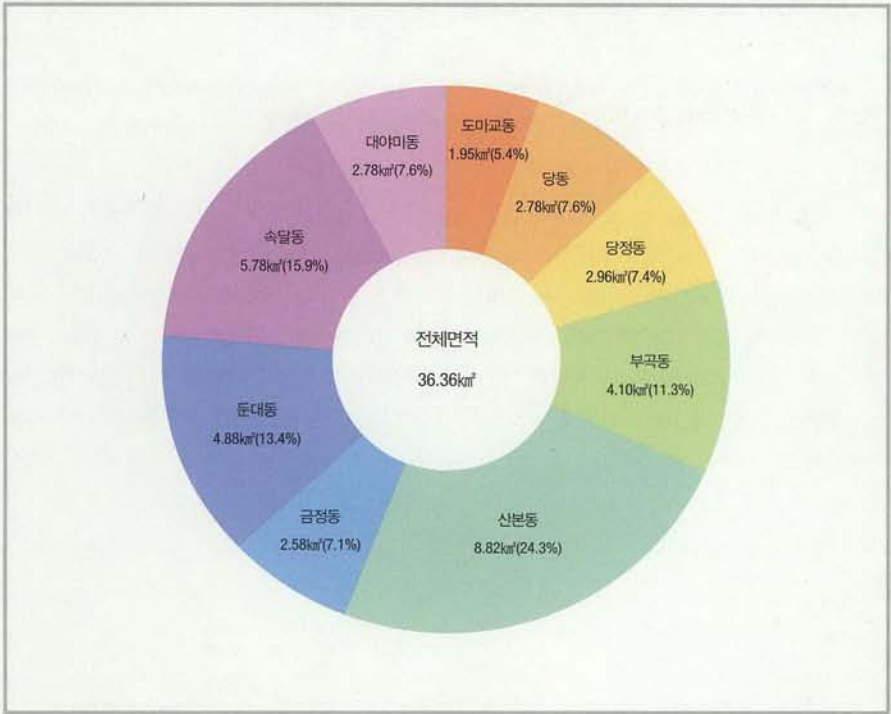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최근 5년간 통계를 활용하여 군포시와 시민 삶의 몇 가지 단면을 살펴보려 한다. 다만, 군포시가 2007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사회통계조사의 결과는 제외하였고, 『군포시사』 본책에 자주 언급되는 통계도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제외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통계자료의 출처는 군포시의 『통계연보』이며,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도 참조하였다. 분석의 기준 시점은 2007년 12월 31일이다. 최신 통계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각 자치단체가 공식 발표하는 통계는 대체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 시점으로 하는데, 기준 시점과 실제 공표 시점은 최소 1년 이상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포시청 홈페이지나 국가통계포털 등에서 몇몇 주제에 대한 최근 통계를 확인할 수 있으나 통계 분석의 시점 통일을 위하여 모두 2007년을 기준 시점으로 하였다. 그 외에 부득이하게 조사 시점이 다른 통계의 경우에는 내용 중에 그 시점을 별도로 밝혀두었다.

1. 통계로 보는 삶터와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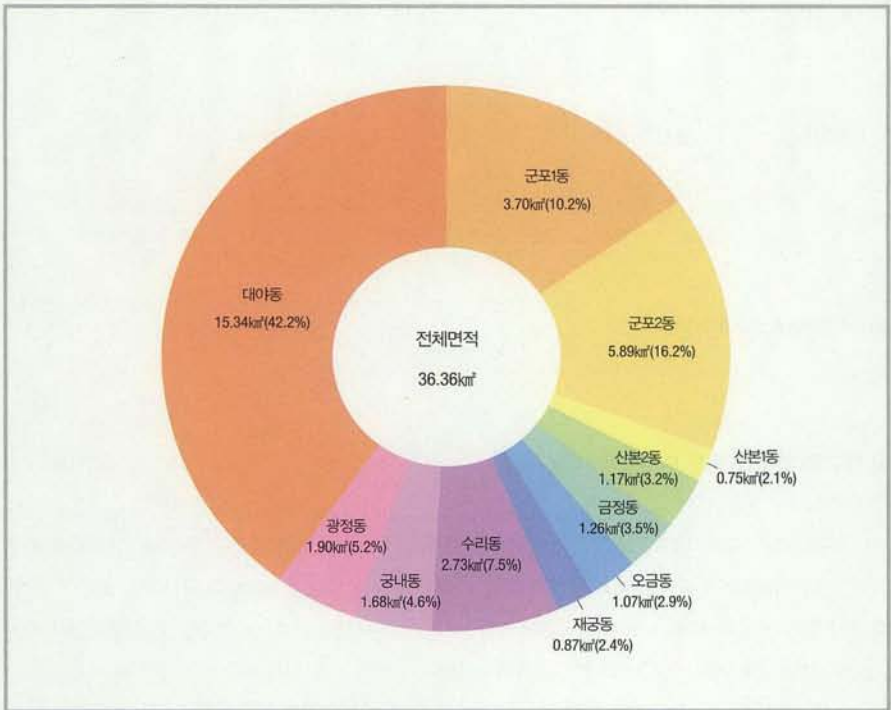
1) 어느 동의 면적이 가장 넓을까?

시흥군 군포읍이 군포시로 승격한 때로부터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도시 곳곳이 개발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행정구역의 면적과 행정동의 수도 수차례 바뀌었다. 2007년 기준으로 군포시 면적은 36.36km²이다. 전국의 시급 기초자치단체 중에 세 번째로 좁은 면적이다.

군포시에는 9개의 법정동과 11개의 행정동이 설치되어 있다. 법정동 중에서 가장 넓은 동은 산본동이다. 산본동에는 행정동인 산본1동·산본2동·궁내동·재궁동·광정동과 오금동 일부가 속하며, 그 면적은 8.82km²에 달하여 시 면적의 24.3%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서 가장 작은 동인 도마교동은 시 면적의 5.4%인 1.95km²에 불과하다. 행정동 중에서는 둔대동·속달동·대야미동·도마교동 등 4개 법정동을 관할하는 대야동이 가장 넓다. 그 면적은 15.34km²로 시 면적의 42.2%이다. 가장 작은 행정동은 0.75km²에 불과한 산본1동이다.



법정동별 면적



행정동별 면적

2) 인구가 가장 많은 동과 적은 동은 어디일까?

2007년 군포시의 인구는 27만 9,536명이며, 1km²당 인구밀도는 7,688명이다. 11개 동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은 군포2동이다. 군포2동에는 시 인구의 14.1%인 3만 9,461명이 거주하였다. 이에 비해서 대야동에는 2.4%인 6,616명이 거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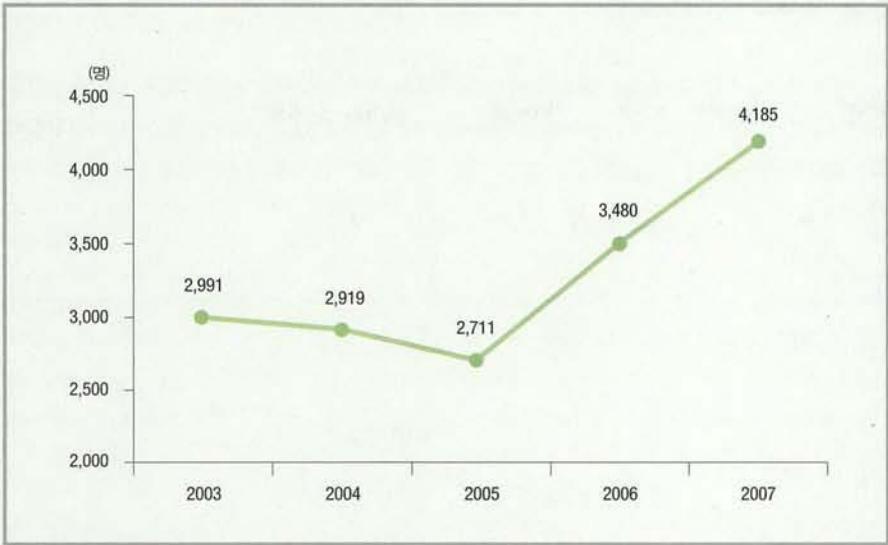
그런데 동별 인구밀도는 인구분포와는 다소 차이가 난다.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동은 산본1동으로, 3만 2,610.7명에 달해 실제 인구를 훨씬 상회하였다. 그 다음으로 재궁동도 인구밀도가 2만 8,834.5명으로 나타나 실제 인구를 크게 상회하였다. 산본1동의 인구밀도는 대야동의 431.3명에 비해서 75.6배나 높았으나 대야동에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임대주택단지가 개발되면서 그 차이는 줄어들고 있다. 전반적으로 산본 신도시권의 인구밀도가 높는데, 수리동만은 8,026.4명에 불과하다. 이는 수리동은 산본 신도시권의 다른 동에 비해서 면적이 넓고 내부에 초막골 등 자연녹지가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2007년 행정동별 인구와 인구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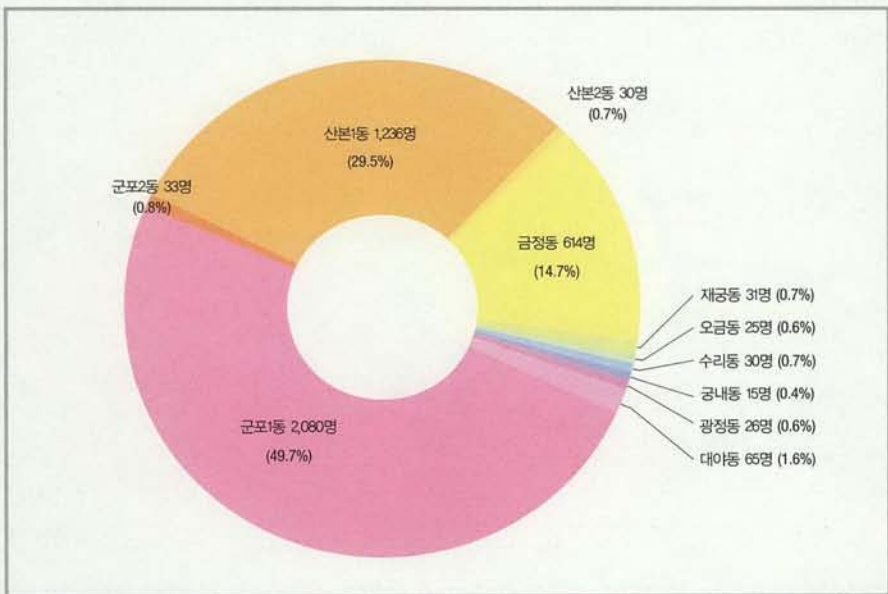
3) 대표적 다문화 동은 어디일까?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외국인 주민의 수도 빠르게 증가해 왔다. 군포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7년 등록인구 기준으로 4,185명의 외국인이 거주하였다. 외국인 주민에 대한 통계가 확인되는 1994년의 394명에 비해서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5년 전인 2003년 2,991명과 비교해도 1,853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한국 국적 취득자나 불법체류자를 포함할 경우,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군포시도 점차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등록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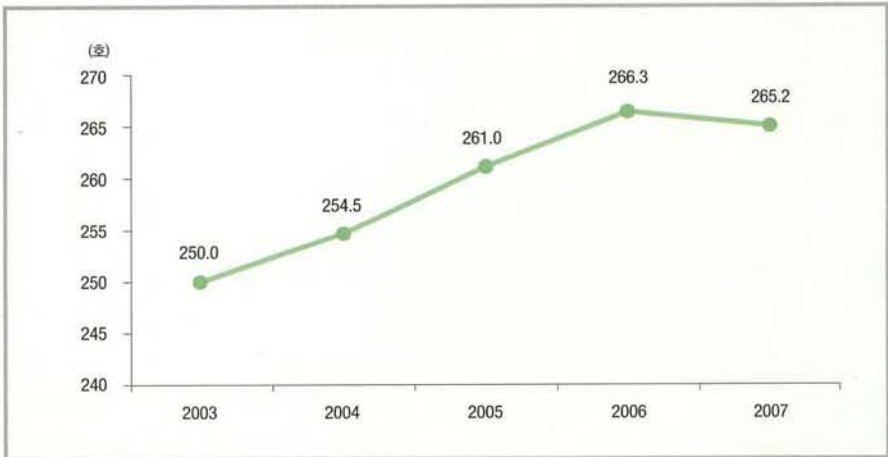
그런데 군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중 45.6%에 달하는 주민은 하나의 동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그곳은 법정동인 당동의 일부와 당정동을 포함하는 군포1동이다. 2007년 외국인 등록 인구 4,185명 중 49.7%인 2,080명이 이곳에 거주하였다. 군포1동은 인구 3만 6,443명의 5.7%, 즉 주민 20명에 1명 이상이 외국인인 다문화 동네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산본1동에도 외국인 등록인구의 29.5%인 1,236명이 거주하였는데, 이곳도 인구의 5.1%가 외국인일 정도로 그 비율이 높았다. 이에 비해서 공업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공내동은 외국인 주민이 15명으로 가장 적었다.



2007년 행정동별 등록 외국인 주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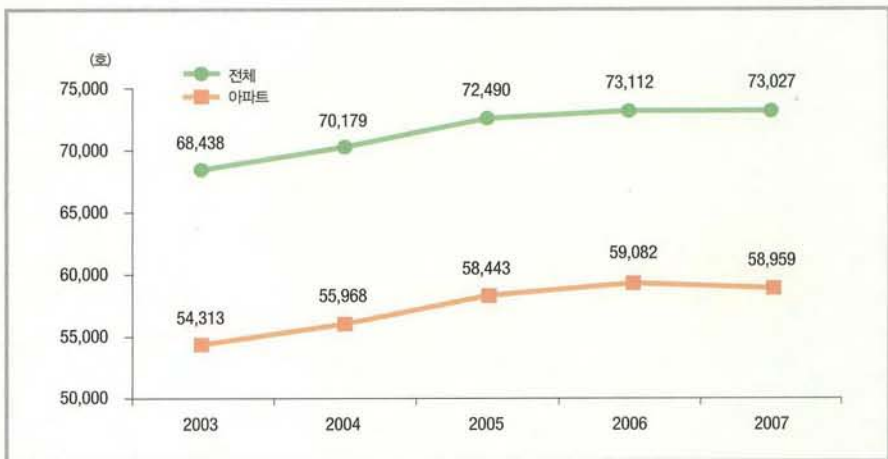
4) 얼마나 많은 주택이 있을까?

주택의 수는 재건축 등의 이유로 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증가세를 보인다. 그 결과, 군포시의 주택수는 2007년 기준으로 7만 3,027호였고, 주택보급률은 98.8%에 달하였다. 1,000명당 주택수는 265.2호 수준이고, 인구(외국인 등록인구 제외) 3.8명당 1호의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



인구 1,000명당 주택 호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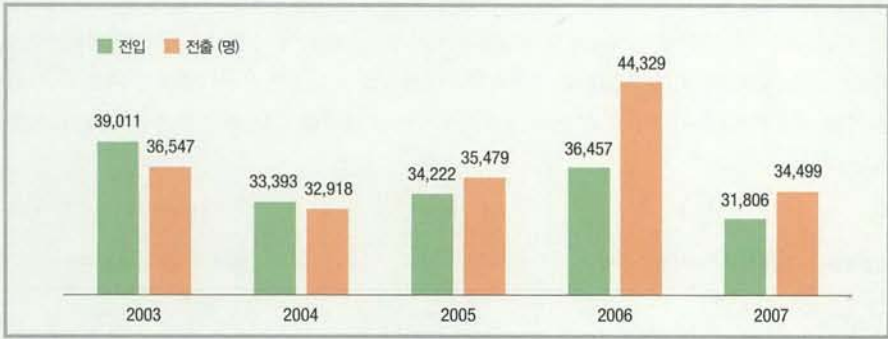
그렇다면, 군포시의 주택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공동주택이다.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의 약 94%가 공동주택이었다. 이러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아파트는 5만 8,959호로, 전체 주택의 80.7%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인 우위를 보였다.



전체 주택 및 아파트 호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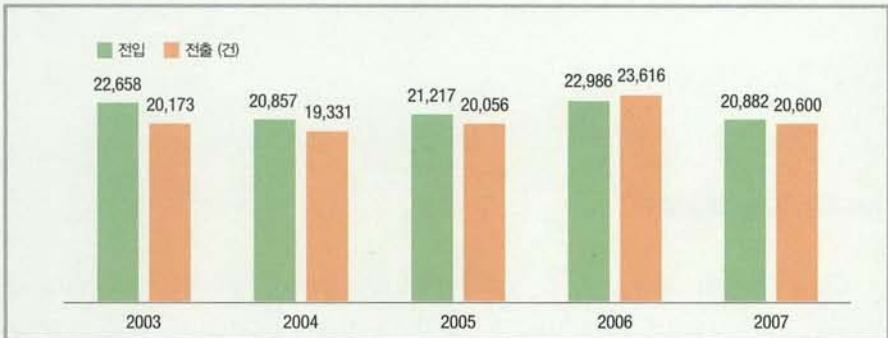
5)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사를 가고 올까?

전출입 인구에서 군포시 내부 이동을 제외하면, 2007년 군포시에서는 3만 4,499명이 타지로 이사를 가고, 3만 1,806명이 군포시로 이사를 왔다. 하루 평균 94.5명이 군포시를 떠난 것이다. 그 대신 87.1명이 이사를 왔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을 비교하면, 군포시에서 타지로 전출한 인구는 총 18만 3,772명이고, 타지에서 군포시로 전입한 인구는 17만 4,889명이다. 전출자가 전입자에 비해서 8,883명이 많다. 2005년 이후로는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았다. 5년간 연평균 전출자는 3만 6,754명, 전입자는 3만 4,978명으로,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1,777명 많았다. 5년간 하루 평균 100.7명이 군포시에서 타지로 이사를 가고, 95.8명이 타지에서 군포시로 이사를 왔다.



연도별 전출입 인구

하지만 전출입 건수는 전출입 인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06년을 제외하면, 전입이 전출보다 많았다. 2007년의 경우, 타지로 전출한 건수, 즉 세대수는 2만 600세대였고, 타지에서 전입한 세대수는 2만 882세대였다. 하루 평균 56.4세대가 떠나고 57.2세대가 온 것이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을 비교하면, 연평균 2만 755세대가 타지로 전출했고, 2만 1,720세대가 타지에서 전입했다. 이처럼 전출입 인구와 세대의 수가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가족 구성원이 많은 다가족이 군포시를 떠나고, 소가족이 군포시로 많이 이사 왔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연도별 전출입 건수

6)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땅과 낮은 땅은 어디일까?

국토해양부는 전국의 개별 토지(약 2,750만 필지) 중 지가대표성 등이 있는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조사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통상적으로 매년 2월 말에 공시되는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or.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군포시의 표준지는 총 521필지에 1,458,541.2㎡이다. 그렇다면 군포시에서 표준지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 그곳은 산본역 북측에 위치한 산본동 1134번지이다. 중심상업지역에 속하는 이곳은 1㎡당 588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2004년 1월 1일 기준 370만 원에 비해서 약 1.6배 상승한 것이다. 대지 면적이 791.3㎡이므로 2008년 공시지가로 이 토지를 모두 매입할 경우에는 46억 5,284만 4,000원이 소요된다. 물론 실제 시세는 이보다 훨씬 큰 금액이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임야인 둔대동 산48-6번지와 산본동 산28번지이다. 이 두 곳은 개발제한자연녹지로, 1㎡당 9,300원이어서 가장 비싼 곳의 0.16% 수준이었다. 둔대동 산48-6번지를 예로 들면, 이곳의 총 면적은 1만 6,661㎡이므로, 2008년 공시지가로 이 토지를 모두 매입할 경우에 1억 5,494만 7,300원이 소요된다.

법정동별 최고·최저 공시지가 필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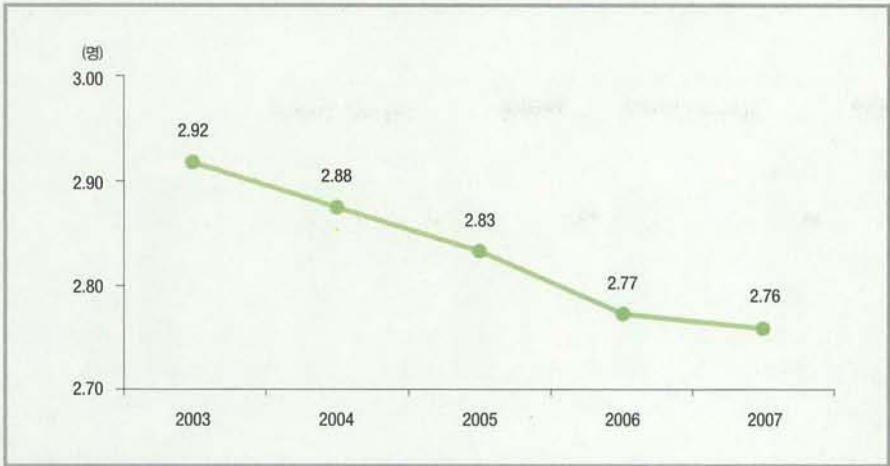
(2009년 1월 1일 기준, 단위: 원/㎡)

법정동	최고				최저			
	번지	지목	공시지가	용도지역	번지	지목	공시지가	용도지역
금정동	874	대	4,720,000	일반상업	산36	임	23,000	개발제한 자연녹지
당동	750-25	대	4,450,000	일반상업	산58-7	임	26,000	
당정동	13	주	2,100,000	일반공업	704-3	임	85,000	
대야미동	가20-1	대	2,210,000	일반상업	산71-3	임	16,000	
도마교동	205-1	대	994,000	준주거	산14	임	13,000	
둔대동	426-6	대	81,000	1종일주	산48-6	임	9,300	
부곡동	518-1	대	1,010,000	준주거	산83	임	46,000	
산본동	1134	대	5,880,000	중심상업	산28	임	9,300	
속달동	265	대	731,000	1종일주	산2-1	임	13,500	

2. 통계로 보는 인구 구성

1) 세대당 인구는 몇 명일까?

외국인 등록인구를 제외한 2007년 군포시의 세대는 9만 9,931세대이고 인구는 27만 5,351명이었다. 세대당 인구는 2.76명에 불과하였다. 이는 군포시 승격 첫 해인 1989년 3.55명, 대야동이 편입된 1994년 3.19명은 물론이고 비교 기간에 속한 2003년 2.92명보다도 크게 줄어든 것이다. 세대당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대당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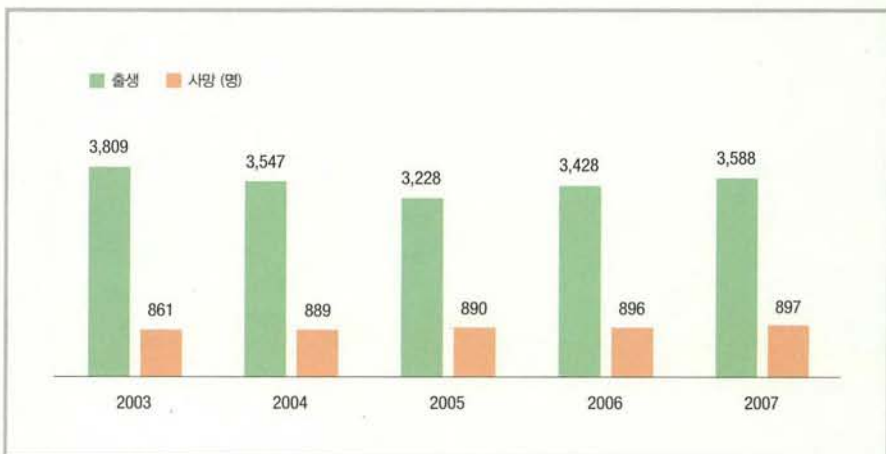
한편, 동별로 세대당 인구의 편차는 크다. 2007년 기준으로 세대당 평균을 상회하는 동은 5개 동, 평균 수준은 2개 동, 그 이하는 4개 동으로 나타났다. 세대당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궁내동으로 3.13명이어서 평균에 비해서 0.37명이 많았다. 이에 비해서 산본1동은 2.34명에 불과하여 평균에 비해 0.42명이 적었다. 두 동의 세대당 인구 차이는 0.79명에 달한다.



2007년 행정동별 세대당 인구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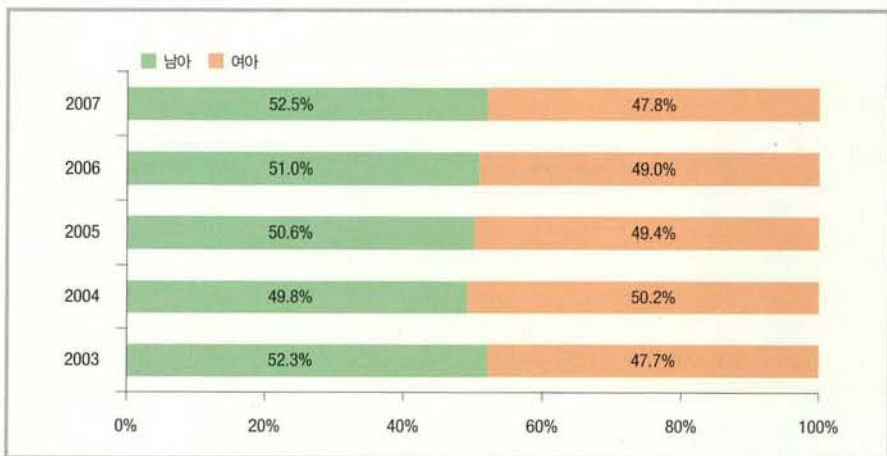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군포시에서는 1만 7,600명이 출생하고 4,433명이 사망하였다. 같은 기간 출생자 대비 사망자의 수는 25.2% 수준이다. 연평균으로 보면, 3,520명이 태어나고 886.6명



연도별 출생자 및 사망자 수

이 사망하였다. 이 기간 중 출생신고는 2003년에 가장 많았고, 사망신고는 2007년에 가장 많았다.

출생자를 성별로 분류해 보면, 2004년을 제외한 나머지 해에는 모두 남아의 출생률이 높았다. 총 1만 7,600명 가운데 남자는 9,011명으로 51.2%를 차지했고, 여자는 8,589명으로 48.8%를 차지했다. 분석 기간 중 한 해 평균 남아가 9,011명, 여아가 8,589명 출생하여 남아의 출생률이 높았는데, 이는 이전 시기에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연도별 출생자 중 남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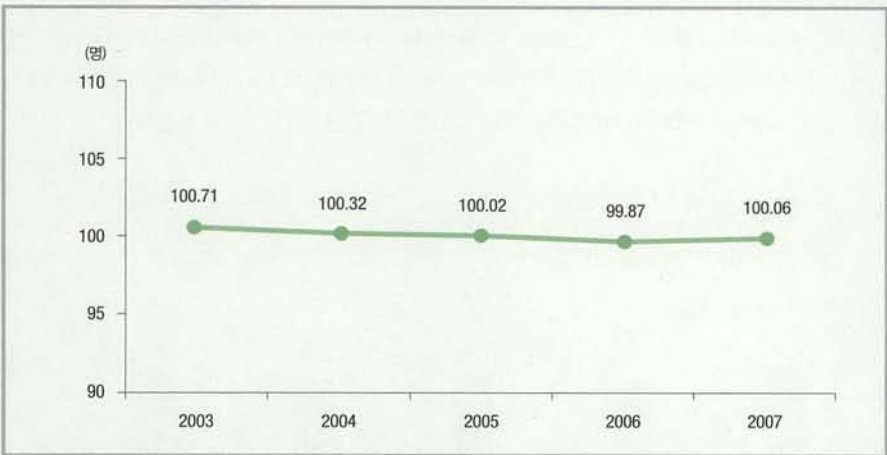
이에 비해서 사망자를 성별로 구분했을 때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이 사망하였다. 한 해 평균 남성이 474명, 여성이 412명 사망하여 남성이 여성에 비해 62명이 많았다. 5년간 사망자를 합산해 비교하면, 남성은 전체 사망자 4,433명의 53.5%인 2,371명이었고, 여성은 46.5%인 2,062명이었다.



연도별 사망자 중 남녀 비율

3) 남녀 인구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2007년 기준 군포시 인구 중 외국인 등록인구를 제외한 한국인 인구는 27만 5,351명이다. 그중 남성은 13만 7,718명, 여성은 13만 7,633명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85명 많다. 성비는 100.06명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 100.46명과 비교할 때 대단히 양호한 수준이다. 군포시는 충청남도 부여군의 100.02명 다음으로 성비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도시로 나타난다. 외국인 등록인구를 포함하더라도 성비는 100.22명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성비 변화 추이

2007년 기준으로 동별로는 11개 행정동 가운데 여성이 많은 곳이 7개 동, 남성이 많은 곳이 4개 동이며, 성비에서는 군포2동이 100.89명으로 가장 조화를 이루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남초 현상이 두드러지거나 여초 현상이 두드러지는 곳도 있다. 군포1동은 성비가 110.07이어서 남초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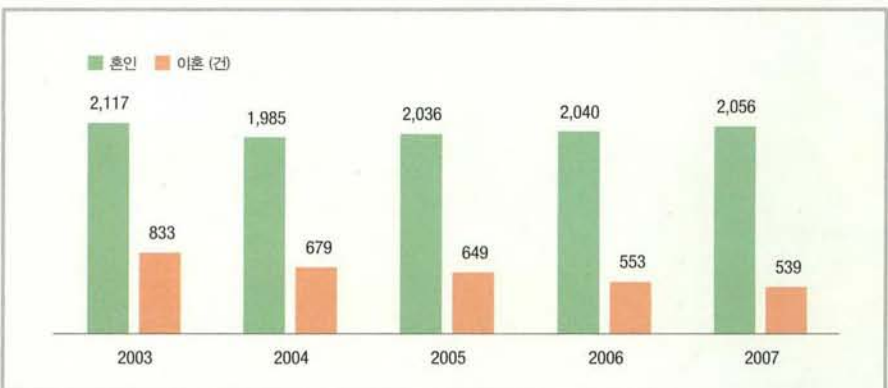
과 성비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곳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금정동도 106.99명으로 남초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에 비해서 여초 현상이 심한 곳은 광정동으로 나타났는데, 이곳의 성비는 93.76명이었다. 재궁동도 95.06명으로 여초 현상이 심한 곳으로 나타났다.



2007년 행정동별 성비

4)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결혼하고 이혼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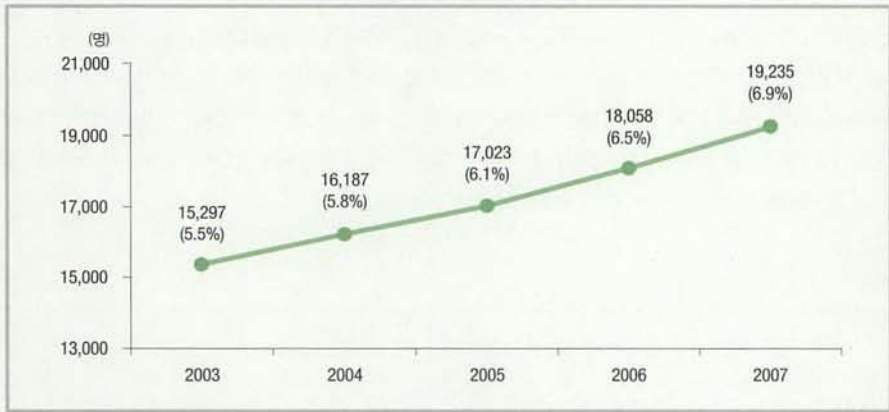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혼인 신고는 1만 234건으로, 한 해 평균 2,047쌍이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최근 5년간 결혼한 쌍은 2004년에 감소한 이후로 큰 변동 없이 조금씩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서 이혼 신고는 3,253건으로, 한 해 평균 650.6쌍이 이혼하여 부부에서 남남으로 갈라섰다. 이혼의 경우에는 결혼과 달리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2003년 833쌍에서 2007년에는 539쌍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2007년 기준으로 이혼 건수는 혼인 건수의 26.2% 수준이다.



연도별 혼인 및 이혼 건수

5) 노인 인구의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사회가 고령화 단계로 진입하면서 각종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2007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의 9.9%에 달하였다. 그렇다면 군포시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2007년 기준으로 외국인 등록인구를 제외한 군포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1만 9,235명으로 전체의 6.9%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그 비율이 낮았다. 그러나 그 증가세는 가팔라서 2003년 1만 5,297명보다 3,924명이 증가하였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3년의 5.5%보다 크게 높아졌다.



65세 이상 인구 추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동별로 차이를 보인다. 2007년 기준으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광정동으로, 2,507명이 65세 이상이었다. 2만 9,323명의 동 인구 중 8.5%를 차지하였다. 노인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대야동으로, 615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동 인구 대비 비율은 9.3%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농업지대라는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군포2동은 노인 인구 비율이 5.5%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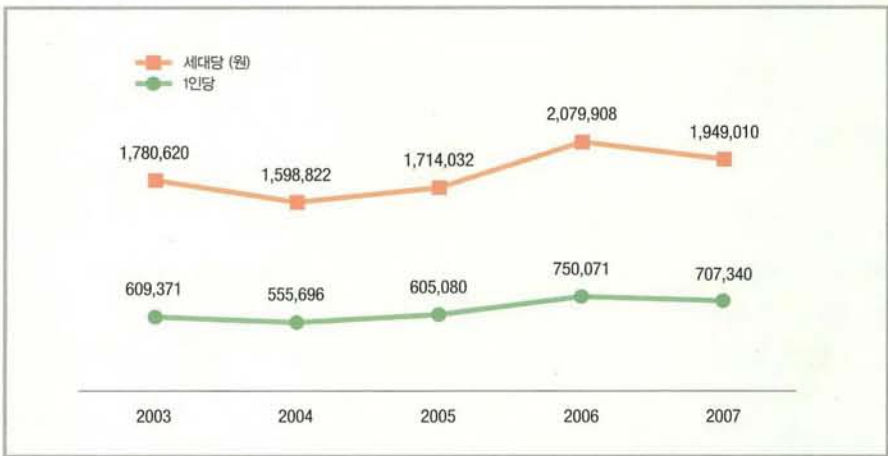
2007년 행정동별 65세 이상 인구

3. 통계로 보는 일상생활

1) 얼마의 세금을 내고 있을까?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에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 같은 직접세와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와 같은 간접세 등이 포함된다. 2007년 기준으로 군포시에서는 총 5,819억 1,900만 원의 국세가 징수되었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연평균 6,281억 6,600만 원이 징수되었다. 지방세는 경기도가 걷는 도세와 군포시가 걷는 시세로 구분되는데, 도세에는 취득세·등록세·면허세·레저세가 있고, 시세에는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등이 있다. 2007년 기준으로 군포시에서는 1,947억 6,649만 원의 지방세가 징수되었고, 5년간 연평균 1,777억 7,122만 5,000원이 징수되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1인당 및 세대당 세금을 파악할 수 있다. 군포시에서는 2007년 기준으로 인구(외국인 등록인구 제외) 1인당 70만 7,340원, 세대당 194만 9,010원의 지방세를 부담하였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에는 2006년에 가장 많은 지방세를 부담하였는데, 이 해에는 1인당 75만 7,507원, 세대당 207만 9,908원의 지방세를 부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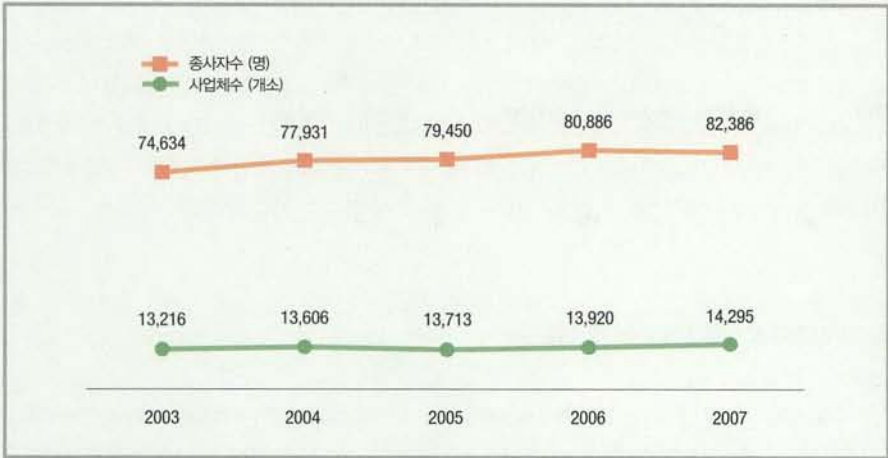


1인당 및 세대당 지방세 징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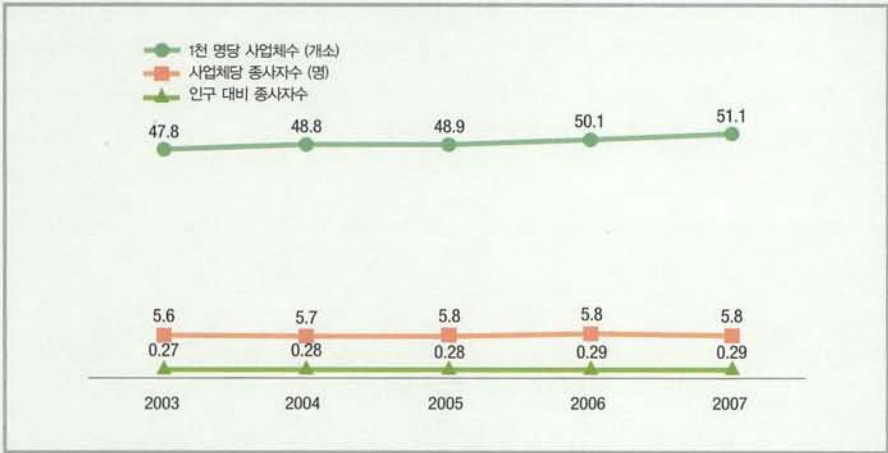
2)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구는 얼마나 될까?

군포시에는 2007년 기준으로 총 1만 3,934개소의 사업체가 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사업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종사자수도 2003년 1만 3,216명에서 2007년 1만 4,295명으로 늘어났고,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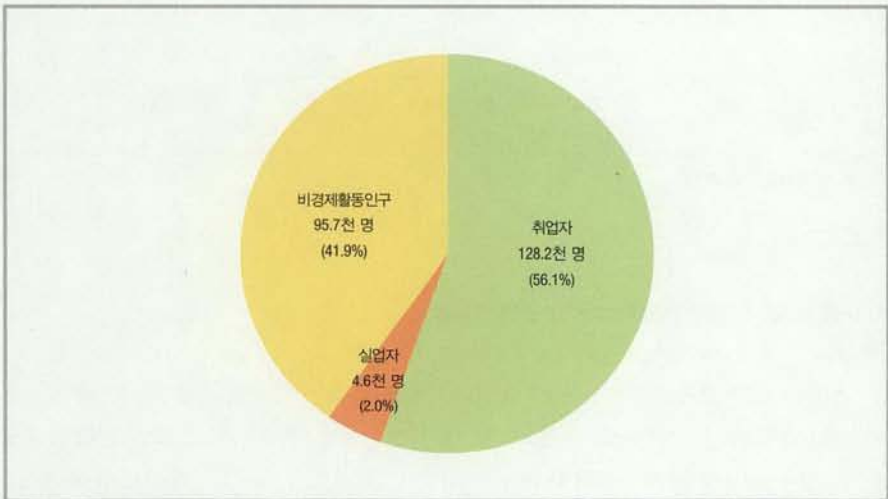
외국인 등록인구를 포함할 경우,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는 2003년 47.8개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51.1개소로 늘어났다. 사업체당 종사자수도 2003년 5.6명에서 2007년 5.8명으로 증가하였고, 인구 대비 종사자수도 0.27명에서 0.29명으로 증가하였다.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



인구·사업체 대비 지표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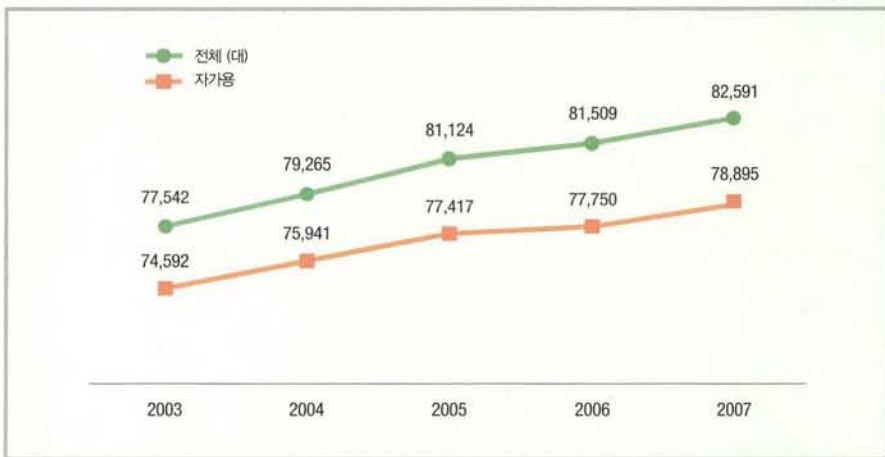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상태(2008년 10월 기준)

한편, 통계청은 2008년 10월 12~18일 기준으로 전국 17만 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였다. 그에 따르면, 군포시에서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는 58.1%인 13만 2,800여 명이었고, 실제 취업자는 56.1%인 12만 8,200여 명으로 조사되었다. 실업자는 4,600여 명으로 실업률은 3.5%였다. 취업자의 경우, 성별로는 남자가 7만 8,300여 명, 여자가 5만 400여 명이었고, 연령별로는 30~49세가 7만 5,200여 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취업자 중 4만 1,400여 명은 군포시에 직장이 있었고, 나머지 8만 6,800여 명은 타 지역에 직장이 있었다.

3) 각 가정이 보유한 자동차는 몇 대일까?

군포시에는 2007년 기준으로 8만 2,591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연평균 1,262대씩 증가하였다. 하루 평균 3.5대 정도가 늘어난 것이다. 2007년 기준 등록자동차 중 95.5%인 7만 8,895대는 개인 소유의 자가용이다. 세대당 0.8대, 1인당 0.3대의 자가용을 보유한 셈인데, 2003년 이후 변함이 없다. 이에 비해 관용은 0.3%인 222대에 불과하고, 영업용은 그 나머지만인 3,474대로 4.2%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자동차들로 인해 군포시는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자동차세를 지방세로 걷고 있고, 2007년의 경우에는 131억 5,312만 5,000원이 걸렸다. 또한 자동차 운행으로 걷는 주행세는 2007년에 125억 8,033만 8,000원이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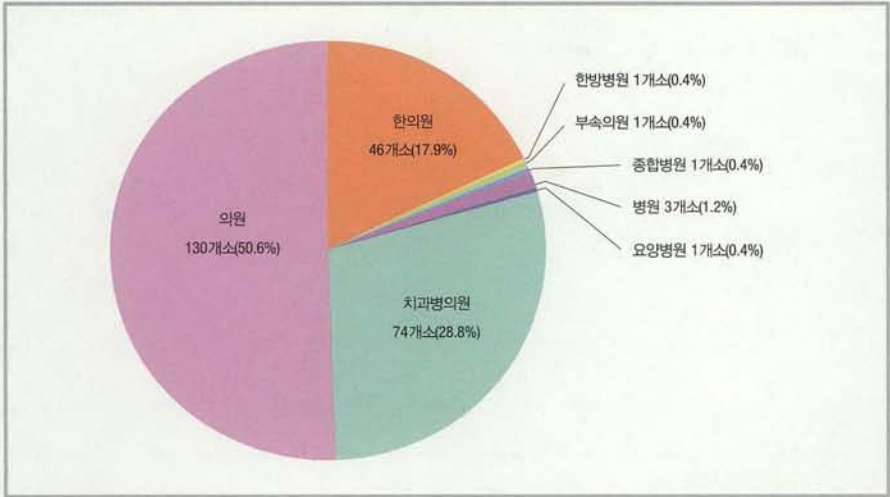


자동차 및 자가용 보유 추이

4) 아들 때 갈 수 있는 의료시설은 몇 곳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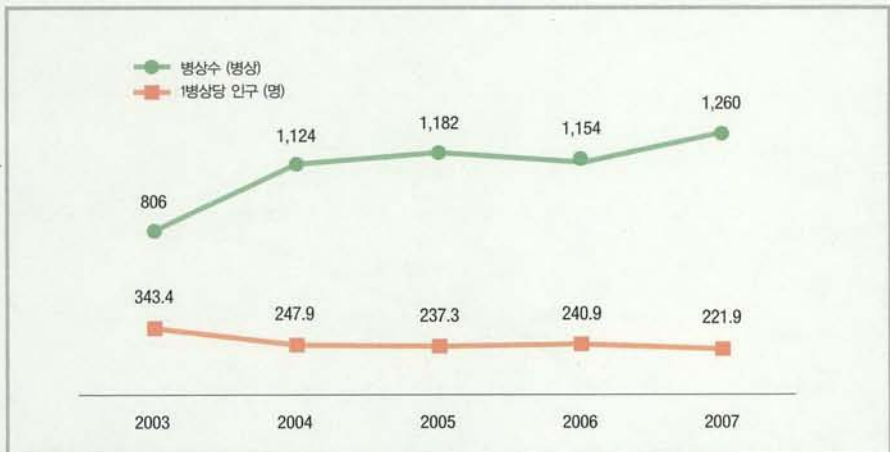
2007년 기준으로 군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의료시설(약국 제외)은 총 257개소이다. 그중에는 종합병원 1개소, 병원 3개소, 의원 129개소 등이 있다. 동별로는 전체의 35.4%인 91개소가 광정동에 밀집해 있고, 병상수도 전체의 44.4%인 560병상이 이곳에 있다. 인구가 가장 적은 대야동에는 3개소만 있을 뿐이며, 수리동과 오금동에도 6개소씩만 있다. 광정동에 의료시설이 밀집한 것은 이곳

이 산본 신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그 내부에 중심상업지역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형병원도 대부분 이곳에 밀집해 있다. 의료시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 227개소에서 2007년 257개소로 5년간 30개소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종합병원은 1개소, 병원은 3개소에 불과하다.



2007년 의료시설(약국 제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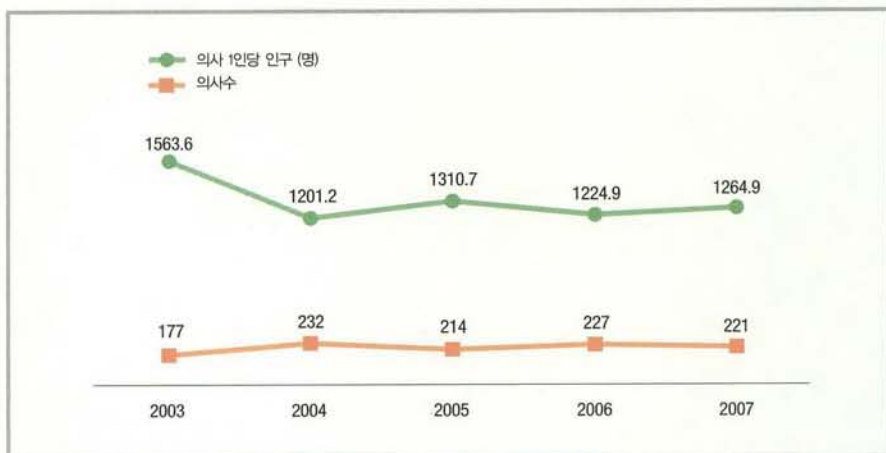
입원할 경우 치료를 받고 싶 수 있는 병상은 2007년 기준으로 1,260병상에 달한다. 그중 종합병원이 325병상, 병원이 이와 비슷한 326병상, 의원이 423병상 등이다. 병상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그에 따라 1병상당 주민의 수는 2003년 343.4명에서 2007년 221.9명으로 대폭 감소하여 의료환경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병상수 및 1병상당 인구 추이

상근 및 비상근을 포함하여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제외) 1인당 주민수(외국인 등록인구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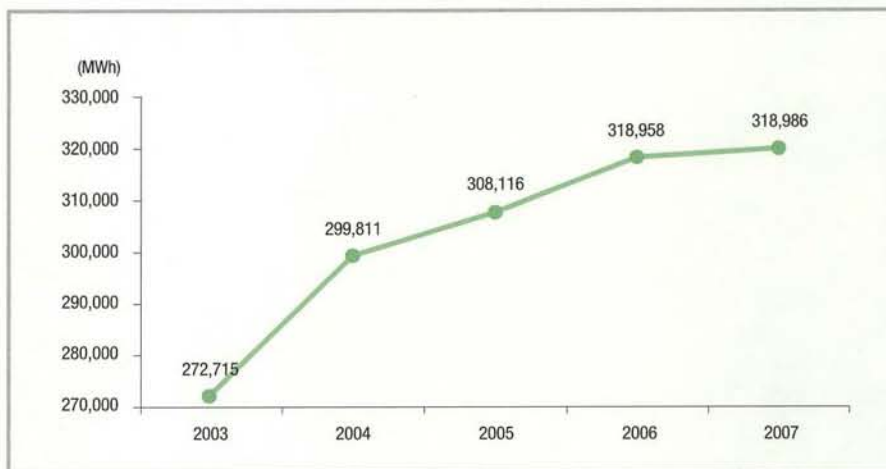
는 2007년 기준으로 1,264.9명이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의사 1인당 주민수는 증감을 반복하였다. 특히 2004년에는 그 전해에 비해서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과 남천병원의 확장에 따른 것이다.



의사수 및 의사 1인당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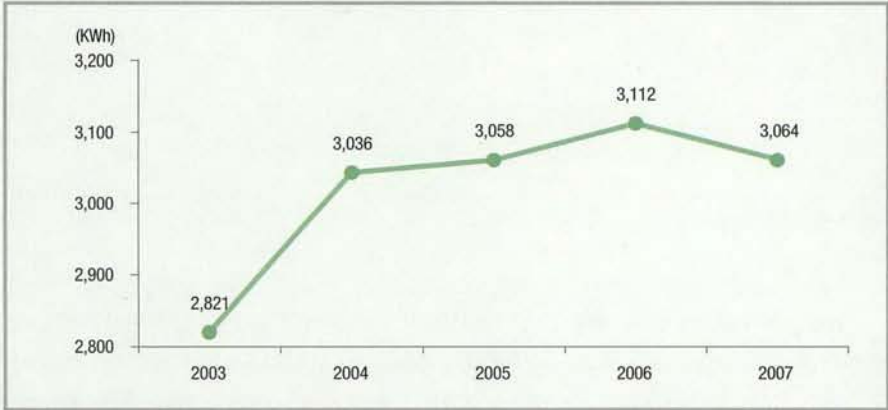
5) 가정에서는 얼마나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을까?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전력사용량 증가와 마찬가지로 군포시의 전력사용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가정용 전력의 사용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군포시에서 연간 사용된 가정용 전력은 총 31만 8,986MWh에 달한다. 이는 2003년 27만 2,715MWh에 비해서 4만 6,271MWh나 증가한 수치다.



연간 가정용 전력사용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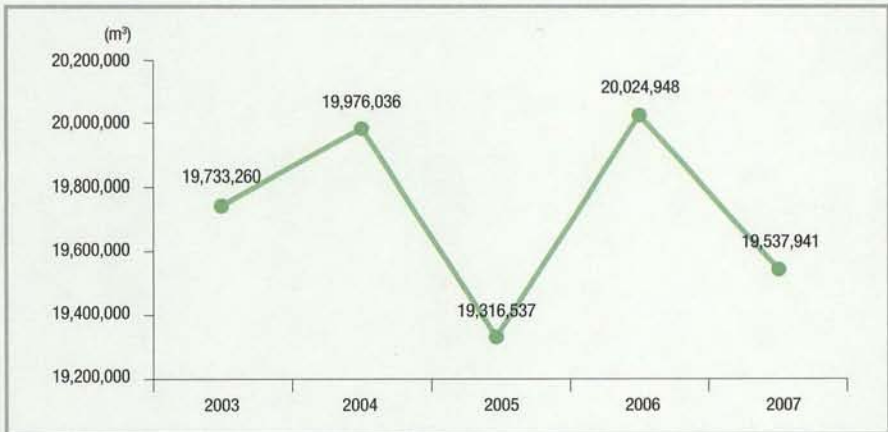
세대당 가정용 전력사용량을 추정하면, 2007년 기준으로 외국인 세대를 포함한 총 세대가 10만 4,116세대이므로, 세대당 연간 3,064KWh를 사용하였다. 하루 평균 약 8.4KWh에 해당하는데, 이는 소비전력이 30W인 형광등 280개를 한 시간 동안 켜거나 200W인 TV를 42시간 동안 볼 수 있는 전력량이다. 전체 가정용 전력사용량과 세대당 사용량의 변화 추이는 다소 차이가 나는데, 이는 세대수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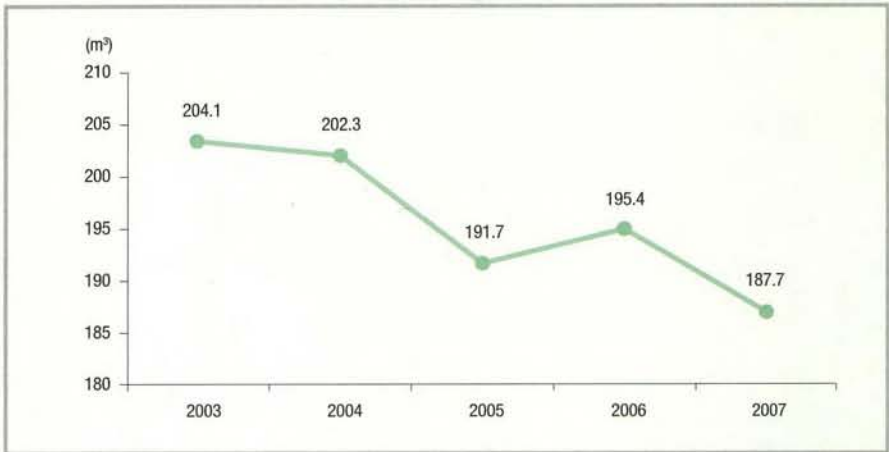
세대당 연간 전력사용량 추이

6) 가정에서는 얼마나 많은 물을 사용하고 있을까?

군포시는 2007년에 상수도 보급률 100%를 달성했다. 하루 시설 용량은 15만 6,000m³, 급수량은 7만 7,015m³, 1인당 급수량은 276ℓ에 달한다. 급수 사용량은 연간 2,577만 3,613m³이었다. 그중 가정용이 1,953만 7,941m³이어서 전체 사용량의 75.8%가 가정에서 소비되었다. 가정용 급수사용량은 해에 따라서 증감을 보이는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평균은 1,971만 7,444m³였다.



연간 가정용 급수사용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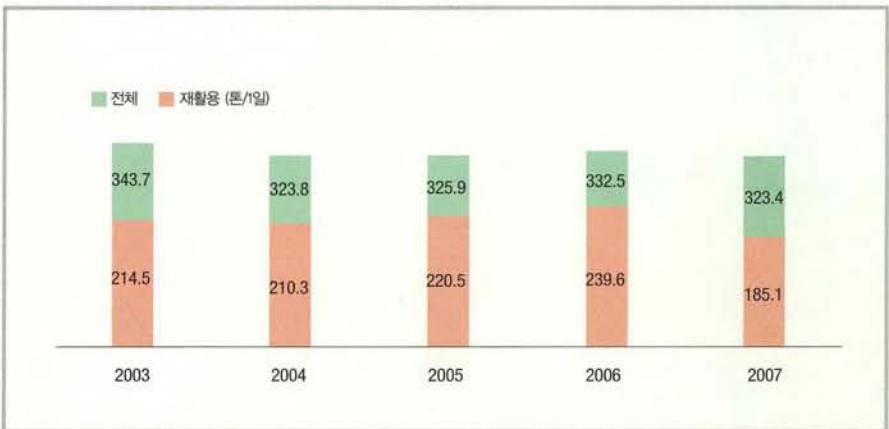


세대당 연간 급수사용량 추이

외국인 세대를 포함한 총 세대가 10만 4,116세대이므로, 세대당 급수사용량은 연간 약 187.7m³, 하루 평균 약 0.5m³였다. 이를 위해서 세대당 연간 약 9만 1,994원의 사용료를 지불하였다. 5년간 전체 가정용 사용량은 증감을 반복하는 향상을 보였으나 세대당 급수사용량은 대체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2003년 204.1m³와 비교할 경우 2007년은 연간 16.4m³가 줄었다.

7) 하루에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어느 정도일까?

2007년 기준으로 군포시에서는 하루 평균 1,244.1톤의 쓰레기가 배출되었다. 전체 쓰레기 배출량 중 26%인 323.4톤이 생활폐기물이었으며, 그중 57.2%인 185.1톤만이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매립 또는 소각되었다. 연간으로 보면, 11만 8,041톤이 생활폐기물로 배출되고, 6만 7,561.5톤이 재활용되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생활폐기물의 1일 배출량은 큰 변화 없이 증감을 반복하는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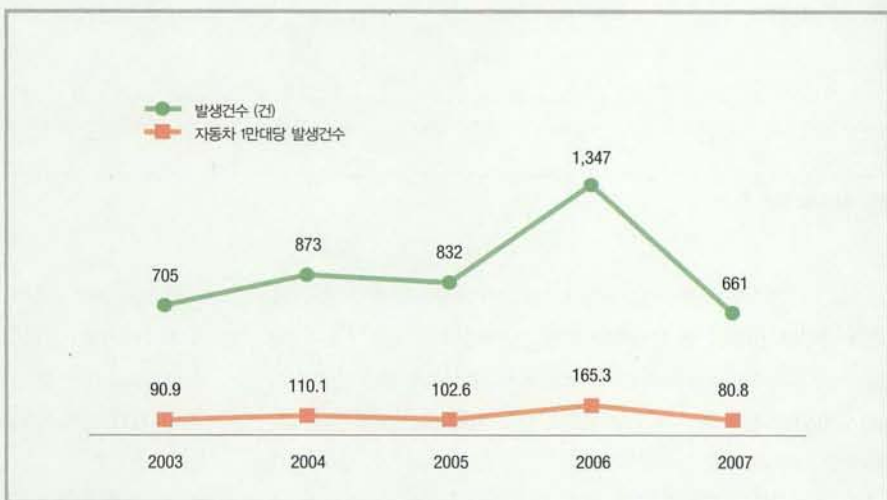
연도별 생활폐기물 하루 배출량 및 재활용량

상을 보였고, 하루 평균 329.86톤이 배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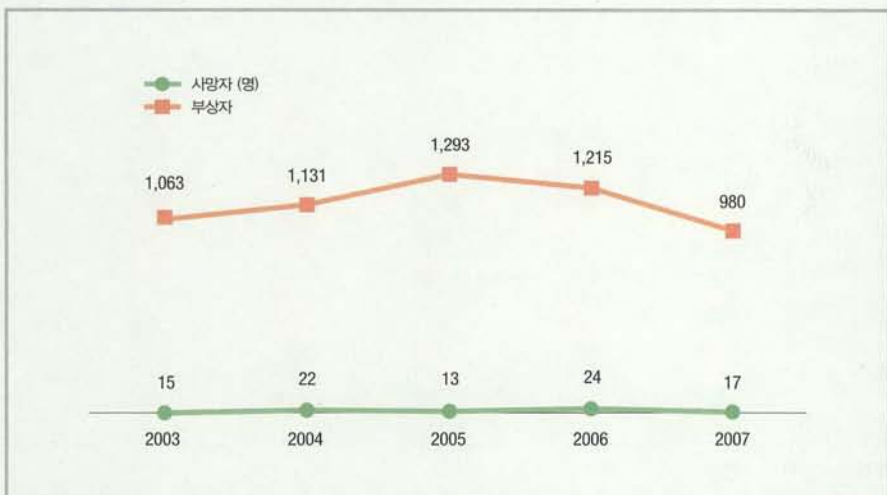
8) 연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을까?

군포시에서는 2007년 한 해 동안 총 66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하루 평균 1.9건이 발생한 셈이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을 비교하면 2006년이 1,347건으로 가장 많았고, 2007년이 가장 적었다. 5년간 교통사고는 연평균 883.6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교통사고로 5년간 연평균 18.2명이 사망하고, 1,13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6.5명, 부상자 407.7명에 해당한다.

범죄의 경우, 2007년에 총 7,859건이 발생했고, 그중 83.6%인 6,574건이 검거되었다. 인구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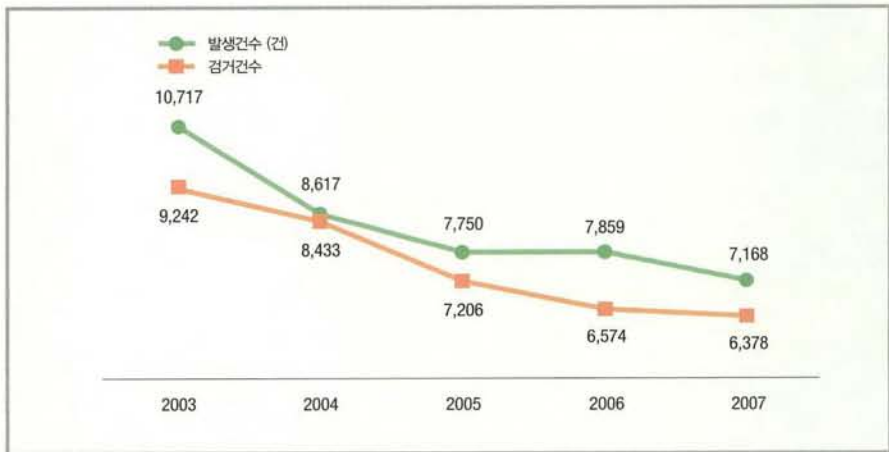


교통사고 발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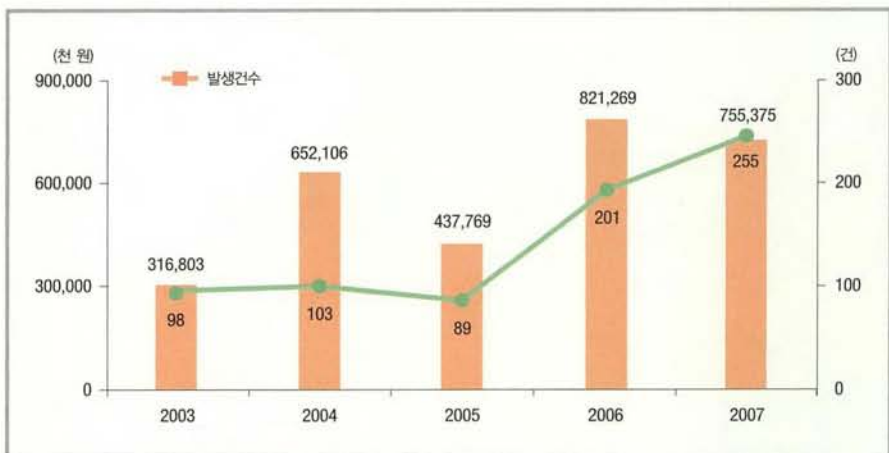
교통사고 사상자 추이

명당 38.7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하루 평균으로는 19.6건이 발생하고 17.5건이 검거된 셈이다. 2003년과 2007년까지 5년 동안을 비교하면, 2003년이 1만 71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발생건수는 대체로 감소세였다. 5년간 범죄 발생건수는 연평균 8,422건이 발생하고 7,567건이 검거되었다. 이는 하루 평균 23.1건이 발생하여 20.7건이 검거된 셈이다.



범죄 발생 및 검거 추이

화재의 경우를 보면, 2007년에 총 255건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7억 5,537만 5,000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으나 8명이 부상을 당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을 보면, 2005년에 89건으로 화재가 가장 적게 일어났고, 2007년에 가장 많이 일어났다. 5년간 총 746건, 연간 149.2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재산 피해는 총 29억 8,332만 2,000원, 연평균 5억 9,666만 4,000원이었다.



화재 발생 추이 및 피해액

여 백

